

할렐루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 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인 말씀을 주시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복음을 통해 영생으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이 살아 있는 말씀으로 늘 충만하게 하시어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 받음에 늘 부족함이 없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러기를 힘쓰라

우주의 지배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기이한 디테일 성경의 저자들이 제공하는 모든 정보가 중요하다

좋은 스토리에는 종종 기이한 디테일이 들어 있다. 하지만 처음에는 이상하고 무작위로만 보이던 게 나중에 흥미롭고 통찰력 있는 내용으로 밝혀지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 백 투 더 퓨처 3부에서 브라운 박사가 쓴 스카프가 2부에서 그가 입었던 셔츠와 같은 소재로 만들어졌다는 디테일이 여기에 해당한다. 더 큰 내러티브에 비추어 볼 때 평범한 천 조각마저도 새로운 의미를 갖는다.

마가복음 16장에도 이와 비슷한, 이상하지만 중요한 디테일이 들어있다. 명확한 부활의 모습이 없는 마가복음 엔딩(1-8절)은 일부 주석가들에게 오랫동안 문제거리였다. 마가복음과 달리 마태, 누가,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두 여자에게 나타났던 사건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마가복음 엔딩에서 만나는 이상한 세부 사항 하나가 어쩌면 이 복음서에 굳이 예수님의 부활 후 모습이 없는 이유 중 하나에 해당하지는도 모른다. 혹시라도 천사의 수수께끼 같은 자세가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지 않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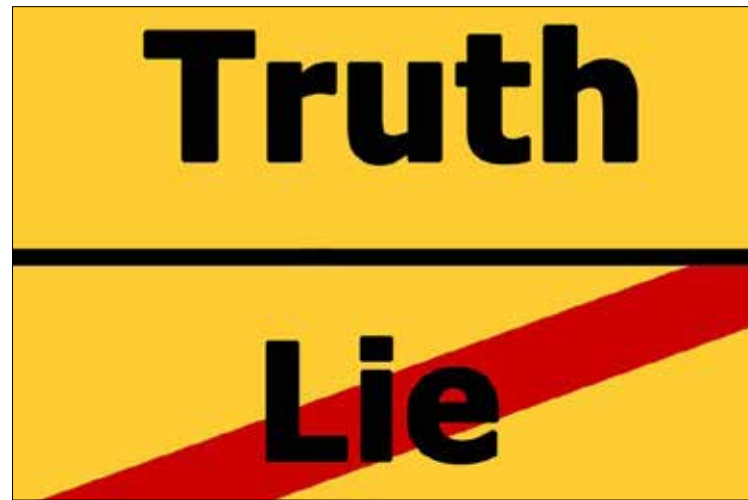
랍게도 돌은 이미 굴러져 있었다(3-4절). 여인들은 무덤으로 들어가 "오른쪽에 앉아 있는 청년[kathēmenon en tois dexiōis]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5절). 마가는 여기서 세 가지 생생한 세부 사항을 밝힌다. 한 사람("청년"), 그 남자가 입은 옷("흰 옷"), 그리고 그 남자의 자세와 위치("오른쪽에 앉아 있음")이다.

있다(kathēmenon en tois dexiōis)"는 이상한 세부 사항을 포함했을 수도 있다. 이 문구의 문자적 번역은 "오른쪽에 앉아 있다"이다. 종종 형용사 "오른쪽(dexios)"은 그 자체로 의미가 충분하기에 명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명사가 암시되었는가는 맥락에 따라서 결정된다(예: 마 6:3; 막 10:40; 눅 1:11). 마가복음 16장 5절에서 "오른쪽" 아마도 무덤 안에 있는 의자(bench)의 "오른쪽"을 의미할 것이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다"는 마가복음에서 두 번 더 나온다.

이 두 구절은 시편 110:1의 그리스어 번역의 핵심 예언을 인용한다. "내가 네 왼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Kathou ek dexiōn]." 시편 110편은 선재하고 신성한 인물, 메시아 즉위에 대한 예언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모든 왼수들을 다스릴 것이다(2, 5-6절).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친히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네 왼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kathou

ek dexiōn]' (12:3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바로 그이요. 당신들은 인자가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ek dexiōn kathēmenon],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오." (14:62) 이 두 구절은 시편 110:1의 그리스어 번역의 핵심 예언을 인용한다. "내가 네 왼수를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Kathou ek dexiōn]." 시편 110편은 선재하고 신성한 인물, 메시아 즉위에 대한 예언이다. 역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모든 왼수들을 다스릴 것이다(2, 5-6절).



거짓말에 맞서 싸우자! 거짓말과의 전쟁 (하) 전략과 네 가지 전술 전략: 결코 고의로 거짓을 지지하지 말라

거짓말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까? 다른 모든 일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야 한다. 요한일서 3:8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고 말한다.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 오셨고, 마귀의 일은 거짓을 퍼뜨리는 것이다. 이 전쟁에서 우리의 역할도 비슷하다. 우리는 거짓에 저항함으로써 악마의 일을 파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우리의 모토는 "거짓말로 살지 말라"여야 한다.

에게서 유래했다. 그는 1974년 소련 당국에 체포된 날 "거짓말로 살지 말라"라는 제목의 글을 발표했는데, 이 글에서 그는 동료 시민들에게 소련의 폭력과 억압에서 벗어나라고 독려했다. 솔제니친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에게 가해지는 억압은 단지 거짓말에 복종하라는, 매일 속임수에 참여하라는 요구가 전부이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우리가 보일 충성심은 충분하다.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종종 소홀히 여겨지지만, 가장 간단하고 가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해방의 열쇠를 발견한다. 내가 거짓말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다! (9면으로 계속)



시론 최해근 목사



목회담당 한일철 목사



푸른초장 박운영 목사

(3면으로 계속)

할렐루야백화점
2024년 다이아리 | 시몬 교회배너 | 현금봉투 | 기독교의 모든것
인터넷 쇼핑몰: BestSaver.us | gospellmall@hotmail.com
뉴욕: 40-21 159th St. #1B, Flushing, NY 11358
Tel. (718)762-0011
Text: (347)952-5442, (347)858-6063
뉴저지: 5B. Brinkerhoff Terrace, Palisades Park, NJ 07650
Tel. (201)346-0030

온라인 스마트교육의 최강자
월드미션대학교
kr.wmu.edu | 500 Shatto Pl., LA, CA 90020 | 213.388.1000

윤새롬 치과
Nouvelle Dental
Lily Yoon DMD / 원장 윤새롬
T. 917- 908-0075
154-08 Northern Blvd 2H, Flushing, NY 11354
YOON.DENTAL154@gmail.com | WWW.LILYMD.COM

각종 행사 기념품 주문 제작
성화, 성구약자, 크리스탈강대상, 성가대·목사까운
(323) 737-7699
인터넷 쇼핑몰: www.lachristianbookcenter.com
E-mail: cbc0191@hotmail.com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총회 48 회기 목사 장로 기도회

For it is made holy by the word of God and prayer

주제: '교회여,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딤후 4:5)

- 일시** 2024년 11월4일(월) 오후 5시 - 11월 7일(목) 오전 9:30분까지, 3박 4일
- 대상** 목사 부부, 장로 부부
- 장소** 남가주기쁨의교회(이항영 목사 시무)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 각 노회 후원금을 요청합니다. 후원금: \$1,000 (각 노회에서 보조해 주신 후원금은 전액 참석하는 해당 노회원들에게 다시 돌려주어 호텔과 차량 렌트비에 보조합니다)
- 후원금 및 찬조금 보내실 곳: Pay to order: RPCSC ('메모'란에 '목사장로기도회' 표기 부탁드립니다)
Mailing address: Rev. Daniel Whang Young Lee
Rejoicing Presbyterian Church 25500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총회장: 권혁천 목사 | 서기: 김대업 목사 | 교육부 부장: 장용호 목사 | 교육부 서기: 이광형 목사

시론



최해근 목사 (몽고메리교회)

미국의 노조 운동을 바라보며

이번 주는 노동절 연휴 주일입니다. 노동절을 보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노동조합, 소위 말하는 노조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사업체에 노조가 구성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말하는 노조조직률을 보면 2021년 한국은 14%인 반면에 미국은 10.8%에 불과합니다. 최근 들어 아마존과 스타벅스에 노조가 결성되어 국제적인 이목을 끌었지만 1980년대의 20% 노조조직률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에 불과합니다. 통계를 통해 볼 수 있는 사실은 미국의 노동운동은 1980년대보다 더 위축되고 줄어든 셈입니다. 그 이유로써 미국이 자동차를 만들던 것과 같은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 서비스업으로 대세가 전환되면서 노조 구성이 자연적으로 줄었다고 분석합니다.

노조 구성이 가져오는 이익과 손실은 공존합니다. 노조를 통해 고용의 안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고용주가 쉽게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는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런 장치로 인해 사업주는 좀 더 효과적인 인사정책의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일자리가 생겼을 경우에는 노조원 출신의 응시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다는 점에서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노조를 통해 직원들은 임금인상의 기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습니다. 병원 의료종사자들(의사/간호사/의료전문가)이 16개월 동안 협상하며 사흘의 파업 후 20%의 급여 인상이 있었고, 전미자동차노조(UAW)의 활약으로 신규 노동자의 초봉 68%, 현 노동자 임급의 25% 인상도 있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노조 구성이 없고 노동자의 요구가 없는 상황에서 고용주 측에서 알아서 임금을 인상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인간의 본심은 남에게 주는 것보다 자신의 몫을 하나라도 더 챙기는 것에 쉽게 마음이 흘러감을 보여 줍니다.

최근 미국노조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 중 하나가 '사회정의'라는 새로운 방향입니다. 17,000개 지점에서 일하는 바리스타 중 1만 명으로 구성된 스타벅스 노조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 중단을 외치며 건물을 점거하며 자신들의 주장을 표현했습니다.

제조업을 해외로 보내며 공장노동자를 잃었던 미국이 이제는 서비스업 노동자를 중심으로 새로운 노조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아름다운 노동 현장을 기도하고 바라며...

살롬.

hankschoi@gmail.com

암시에 주의를 기울이라 성경을 읽기 위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아이들과 함께 마블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숨은그림찾기 하듯이 이 영화에 다른 마블 영화와 연결되어서 숨겨진 연결고리나 미묘한 암시 같은 게 없는지 유심히 찾곤 한다. 종종 어떤 건 지나치게 노골적이어서 연관성을 놓치려야 놓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아주 미묘하게 숨겨진 경우에, 그것을 알아차리려면 같은 영화를 여러 번 봐야 할 때도 있다. 영화 속에 숨겨진 숨은 그림은 다양한 마블 작품을 마블 영화 세계(Marvel Cinematic Universe)라는 더 큰 스토리와 연결하는 조직이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신약성경 저자는 자신들의 글에 숨은 그림을 숨겨놓았다. 그들은 구약성경을 무려 3,000~4,000번 암시한다.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은 실제로 구약성경을 인용하는 건 고작 몇 번에 그치지만(1:7; 2:27), 암시는 무려 오백 번이 넘는다. 흔하고 흔한 암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신약에서 암시를 발견하는 것이 말씀 이해에 어떤 가치를 부여할까? 마가복음 1:7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수수께끼 같은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질문에 답해 보자.

암시란 무엇인가?

암시는 이전에 쓰인 문헌에 대한 간접적인 언급이다. 신약성경 저자들은 일반적으로 특정 구절에 해당하는 몇 가지 고유한 단어를 사용하여 구약성경에 대해서 간접적으로 언급한다. 종종 무시되는 암시 중 하나가 마가복음 1:7에 나오는데, 여기서 저자는 창조물과 인류를 정화하고자 하는 "거룩하신 이"로서 예수님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저자가 암시하는 건 출애굽기 3장에 나오는 불타는 떨기나무 이야기이다.

마가복음의 첫 페이지를 넘기면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수수께끼 같은 인물 중 하나인 세례 요한이 등장한다. 그의 불타는 언어, 기괴한 식단, 이상한 옷차림이 상징하는 정체성은 구약 성경 선지자들의 계보에서 쉽게 찾을 수 있다. 유명한 예언자 엘리야처럼 요한은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이스라엘을 주님이 오실 날에 대비토록 한다(막 1:6; 왕하 1:8; 속 13:4 참조).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관계에 대한 요한의 진술은 종종 독자를 당황하게 한다.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나는 몸을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막 1:7-8, 마 3:11; 눅 3:16; 요 1:27 참조).

요한의 언어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는 종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강조한다. 하지만 요한은 동시에 중요한 구약성경 구절을 하나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 "풀다"라는 그리스어 동사(λύω)는 출애굽기 3:5과 여호수아 5:15에 나오는, 오로지 그리스어(철십인역) 성경에만 등장하는 "샌들(hypodēma)"과 짝을 이룬다. 마가복음은 이러한 초기 이야기를 암시한다. 마가복음 저자가 숨겨놓은 그림은 이 구절과 더 큰 성경 이야기 사이의 연결에 대한 단서를 제공해야만 한다.

신약 속에 있는 구약의 구약 인용

출애굽기 3장의 철십인역에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셨다. 모세는 떨기나무에 다가 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모세가 "거룩한 땅"(5절)에 있기 때문에 "신발(hypodēma)을 풀라(lyσαι)"라고 명령하셨다. 불타는 떨기나무에 거하시는 주님 앞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든 제거해야만 했다. T. 데스몬드 알렉산더가 제안했듯이, 샌들을 벗은 모세의 행위가 성전에서 맨발로 봉사하던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선포

가 되었을 수도 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행한 일은 여호수아 5:15에서 반복되는데, 천사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신발(to hypodēma)을 풀라(lyσαι)" 하고 명령한 이유는 그가 "거룩한" 약속의 땅에서 있기 때문이었다.

이 모든 것을 종합할 때, 마가복음의 암시는 구약(출 3:5)이 구약(수 5:15)에서 인용되었고, 그게 신약(막 1:7)으로까지 와서 다시 인용된 사례이다. 세례 요한은 왜 출애굽기와 여호수아를 미묘하게 암시했을까?

이 암시는 예수님의 정체성에 초점을 맞춘다. 마가는 예수님이 모세, 여호수아, 여호와와 비슷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벗어야 할 샌들을 신었다는 점에서 예수님은 모세, 여호수아의 모습과 같다. "예수"라는 이름이 "여호수아"의 그리스어 번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마 1:21; 눅 1:31). 그러나 이 암시는 예수님이 육신을 입은 여호와임을 보여준다. 예수님은 단순히 여호와를 연상시키는 존재에 그치지 않는다. 예수님은 여호와이고 요한은 예수님의 샌들을 벗길 자격조차 없다. 예수님이 서 있는 모든 곳이 다 "거룩한 땅"이기 때문이다. 마가복음에서 그가 발을 디딘 곳은 어디든 거룩한 성소가 되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가기 때문이다. 에스겔이 예언했듯이, 종말의 성전은 "여호와와 발바닥을 둘 곳"이 될 것이다(겔 43:7).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발행인 겸 편집인: 김성국
L.A. Office: 611 S. Catalina St. #305 Los Angeles, CA 90005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5th Fl. Flushing, NY 11355

교회인쇄물·헌금봉투·배너
Order Online 30% LOW PRICE
in2printing.com
인투인쇄 T. 718-425-8505

www.laguesthouse.com
LA 호텔식 하숙
GUEST HOUSE
패적이고 안전한 환경(김스전기앞)
TEL 213-663-9181
965 Fedora St. L.A., CA 90006
Email: laguesthouse@live.com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총회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
하나님의 주권 아래 탁월함을 추구하는 신학교
THE REFORMED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OF THE EAST
2024학년도 가을학기 입학안내
MOU Signing Ceremony Between GRS and RPTSE
GRS 신학교와 동부 개혁 장로회 신학교 MOU 체결 THURSDAY AUGUST 15TH 2024
2024년 가을학기에 국내외 저명한 상담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Th.M(성경적 상담학 석사)을 개설합니다.
Th.m(성경적 상담학) 원서접수 마감: 9월 14일(토)
www.rptseast.org

목장일기



김재열 목사
(뉴욕 센트럴교회)

목표가 있는 삶과 없는 삶

목표가 있는 사람은 걸음이 빠르다. 그러나 목표 없이 산책하는 사람은 느린 걸음을 걷는다. 목표가 있는 자는 직

선으로 가지만 없는 자는 이리 저리 둘러서 간다. 목표 지향적인 사람은 눈에서 빛이 나지만 그렇지 않는 자는 눈에 힘이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목표가 마음에서 멀어지면 눈에서도 멀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목표는 삶의 의욕을 촉진하지만 목표가 없는 자들은 삶 자체가 짐스럽고 중압감을 느낀다. 따라서 목표가 있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스트레스 지수가 낮지만 목표가 없는 사람은 크고 작은 질병에 시달리기 마련이다.

하버드 대학 심리학 교수였던 새뮤얼 스마일스 박사는 젊은 시절에 세계 2차 대전에 참전했다가 일본군의 포로가 되었다. 수용소의 상황은 최악이었다. 수많은 포로들은 마실 물도 먹을 양식도 절대 부족한 곳에서 수시로 생명을 잃어

고 있다. 만연한 이질과 전염병... 영양 절대부족으로 살아 있는 것이 죽는 것보다 저주스러운 최악의 분위기에서 삶의 목표는 사치스럽게 생각했다고 한다. 그래서 매일 매일 하루라도 더 빨리 어떻게 죽을까? 죽을 방법만 궁리하고 생각에 몰두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포로들을 격리시키는 철조망에 접근해서 고압 전류로 감전사를 할까? 아니면 한 밤중에 목을 매어 죽을까?...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앞에 중국 노인이 나타나 자기를 살렸다고 했다. 실제인지? 의식이 몽롱한 상황인지도 구분할 수 없는 절망 속에 나타난 노인의 질문 한 마디가 자기를 살렸다고 했다. '당신이 수용소에서 나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였

다. 이 간단한 질문은 죽은 나를 일깨웠다고 한다. '그래요! 내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사랑하는 아이들과 아내를 꼭 먼저 보고 싶어요.....' 중얼거리는 순간에 자신의 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 목표를 이룰 때까지 나는 살아야 해! 죽으면 안 돼! 생의 본능과 의욕으로 꿈틀거리기 시작하면서 아무리 전쟁이 길어도 끝나는 날도 가까이 올 것이라는 확신이 차고 넘치기 시작했다. 내가 살아만 있으면 내 가족을 볼 수 있었지? 이것이 바로 목표의 힘이라는 것이다. 목표는 삶의 의미를 불러일으키는 불쏘시게 역할을 한다. 목표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나친 목표 이상주의는 경계해야 하지만 목표 자체가 없다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삶의 수완지를 메꿔

버리는 결과이다. 목표는 가능한 분명한 것이 좋다. 먼저 목표를 세우고 이해와 에너지 집중해서 한 걸음씩 전진해야 하겠다. 목표는 무의식을 일깨우는 각성제이다.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쉬운 몸과 마음을 새롭게 정리하면서 희미해진 목표들을 다시 꺼내 기도와 비전으로 가을맞이 대청소를 해야 하겠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 생명의 말씀을 밝히 나의 담음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빌 2:13, 16)
jykim47@gmail.com

푸/른/초/장

백운영 목사
(GP 선교회)



한국 국적 항공사 매뉴얼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비상사태 때는 반말을 쓰라" 왜 그렇죠? 급한 상황이라 말하는 속도를 줄이려고 할까요? 편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한국인들은 존댓말을 쓰면 긴장감이 떨어지고 장난인줄 안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태가 악화될 때 승무원의 명령이 절대적이어야 할 때는 대상이 누구이든 관계없이 "일어나, 고개 숙여, 돌아보지마, 짐 두고 빨리 움직여, 뛰어서 내려"라고 명령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경각심을 가지고 빠른 속도의 대피가 가능하다는 것이 임상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국 국적 항공사만이 아닙니다. 서구 항공사도 비상사태 때는 단호하게 명령형 언어를 사용하라고 합니다. 상냥한 언어를 사용하면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Get down, Don't take your luggage, Go out, Now Jump! 그래야 사람들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명령대로 따른다. 이것이 몸에 배지 않았으면 평소 그런 훈련을 시켜서 자연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효율적인 대피를 할 수 있도록 승무원의 권위를 가지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매뉴얼이지요?

어나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모든 공동체에 복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 발 앞에 두었는데 그 일로 인해 죽음 맞이하게 된 스토리죠. 그들은 자신의 땅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지만 중도에 마음이 바뀐 것 입니다. 그리고 얼마를 감추고 나머지만 가지고 사도들 찾아옵니다. 성경 총만 한 베드로는 아나니아의 말이

그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셔야만 했나요? 대체 이게 말이 됩니까? 어떻게 현금을 다 드리지 않았다고 생명을 거두어갈 수 있던 말입니까? 본문 3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왜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저주받아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거짓말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죽은 것은 소유의 전부를 드리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

4절에 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그 말은 아나야가 성령을 속였다는 중대한 지적입니다.

오늘날 교회서도 누가 아나니아처럼 헌금 했다면 아마 칭찬과 인정을 받았을 것 입니다. 땅을 팔고 그 값을 다 바치지 않고 얼마만 드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가겠다고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액수와 헌금의 크기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드렸는가로 감동받지 아니하신단 말이지요. 드리는 마음의 동기와 그 안에 담겨있는 헌신과 사랑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양과 정도가 아닌 마음이지요

우리가 어떻게 참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거짓말은 사탄의 지배를 받는 행위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워렌 위어스비 목사는 "정직의 위기"란 책에서 남에게 거짓말 하는 것은 영적인 어둠에 들어가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거짓말이 계속되면 이제는 꾸며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삶의 방식이 되어 남을 속이는 위선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삶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것이 자신의 모습이 됩니다. 왜 우리는 계속 거짓말을 합니까? 그것은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지요.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무슨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자요 진리가 그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때마다 거짓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성경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로 소개합니다. 사탄이 "우리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나니"우리가 매일 하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합니다. 욕심은 믿음과 반대 길을 가도록 합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명언이죠.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해서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결코 바보가 아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이는 존재가 있기 때문이지요. 3절을 보세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가 무슨

여러분이 욕심을 버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삶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매일 간구하면서 하나님과 기도와 말씀으로 긴밀하게 교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차츰 성숙해지고 세상 욕심보다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서 이제 앞으로 "죄 짓지 말아야겠다. 경건하게 살아야겠다. 착실하게 헌금 생활 잘 해야겠다."라고 결론 지었던 안 됩니다. 오늘 가르침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아닌 우리 마음을 살피라는 가르침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신앙의 과정에서 자기 자신의 의와 공로를 앞세우는 것을 경계하십니다. 우리는 여전히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자들이죠. 은혜를 통해서 매일 나의 동기를 점검하고 내가 혹시 하나님보다 세상에서 주는 명제를 더 원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확인할 때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이란 내 혼자 힘으로 선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손길에서 죄를 이기는 것도 가능하고 매일 승리하는 것도 가능하단 고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로 이겨내며 은혜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미주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gypaek@hotmail.com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라

사도행전 4: 36 - 5: 11

거짓된 것을 알고 기회를 줍니다. "이것이 전부냐?" 아나니아는 뻔뻔한 거짓말을 계속 이어가고 결국 그 자리서 엎드려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3시간 지나 아내 삽비라가 사도들 앞에 옵니다. 그리고 남편처럼 동일한 거짓말을 하고 결국 삽비라도 죽고 말았습니다. 이 부부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우리는 4장 마지막을 보면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36절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에 있으며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요셉이란 사람이 무엇을 했다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기꺼이 팔았습니다. 그 전부를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와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해서 달라 부락했습니다. 아마 이것이 당시에 많은 감동과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죠.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 사건을 보면서 자신들도 그렇게 박수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들의 동기는 출발부터 잘못된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헌금했지만 사실, 아까웠던 것이죠.

거짓된 마음, 거짓된 믿음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교회에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교회에 경고하신 것 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교회에게 여전히 하시려는 말씀과 교훈이 무엇인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두 가지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거짓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과 참된 신앙은 서로 동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에 거짓말 한번 안 해 본 사람 어디 있나요? 그리고 거짓말 했다고 다 죽음으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 여기 살아남을 사람이 대체 있을까요? 성경은 한두 번 실수로 하는 거짓이 아닌 반복적으로 전 혀 양심의 가책 없이 그냥 살아가는 부분처럼 나오는 거짓말, 일상적으로 말만했다 하면 거짓이요, 자기 자랑이요 부풀리고 뻔뻔하기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새빨간 거짓말에 속박된 사람이 있어요. 그런 행위는 지금 정을 받기 위해서 만들어진 헌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얻고자 헌금했지만 사실, 아까웠던 것이죠.

성을 보십시오. 그렇다고 이제 헌금 액수를 대폭 줄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헌금의 의미와 의도를 잘 알아야 합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헌금은 내 인생의 주인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나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사람들 보라고 드렸습니니다. 그들은 소유를 팔아 헌금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체면 때문 이었고 존경을 받기 위한 수단 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신이 여전히 괜찮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죄 성에 의해서 죄인이라 것을 의식 하지 않습니다. 구원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은 회개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회심의 과정도 없이 교회만 다니면 이런 사람들을 종교인이라 부릅니다.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들어와 참된 신앙을 갖지 못한 채 종교인으로 살았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착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 하신다고 했습니다.

말을 합니까? 그들이 성령을 속이게 된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의 존재를 분명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서 본 장면이지요? 창세기 3장에 거지의 명수인 사탄은 그때부터, 후에 초대교회 때도, 아니 지금도 계속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에 속고나면 우리도 거짓말의 명수가 되어 사람들이 주는 박수와 높이에 반응합니다. 왜 인류가 타락했나요? 모든 발단은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욕심은 사탄이 노략질하기 가장 쉬운 놀이터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사탄은 우리 마음을 헤집고 마음대로 놀면서 주변에 악한 영향을 주고 자신의 영역을 넓혀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은밀하게 행한 모든 것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다 드러나게 될 것 입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탄의 꾀임에 속은 것이요 속이는 자가 된 것이죠. 요한복음 8:44은 죄 성에 대한 증거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자라나는 2세 아이들에게 세 가지씩 꼭 가르치도록 강권한다. 태권도, 피아노, 한글이다. 태권도를 통해 바른 생활의 태도와 자세를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피아노는 모든 악기를 배우는 기초가 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도구를 익히는 첫 걸음이 되기에 남녀 아이 불문하고 가르치도록 한다. 그런데 이 세가지 중에서 제일 강조하는 것은 한글교육이다. 언어의 전수가 없으면 신앙도, 예배도, 교회의 미래도, 부모의 좋은 가르침도 전수 되지 않기 때문이다. 가을이 되어, 미주에서 교회를 중심한 대부분의 한글학교들이 개강을 했다. 이러한 때에, 본 교회 한글교육의 특별한

것은 곧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해 주었다. 이런 이상한 답이 어디에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성경적인 답이다. 교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칼빈의 말이다.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어머니를 찾아오고 그의 품을 귀하게 여기면 그 어머니가 모든 것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다. 그런데, 20년을 그렇게 지나왔더니, 당연한 줄 알고 저항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랍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한글에 대한 반응이 좋고, 언어가 바르게 정리되어 있으니 어른들을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또한 달라진 것이다. 타주의 어느 규모있는 교회를 방문한 적

이것은 단순히 예배를 함께 못 드림이 아니라, 한국말도 하려 하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자신들과 담임목사님이 직접적인 연결 관계가 없으니, 어떤 경우에는 담임목사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옆으로 지나가도 인사할 줄도 모른다. 어른을 향해서도 겸손한 자세를 취할 줄 모른다. 자신들이 미국 사람인 줄로 안다. 한국말에 전무할 뿐 아니라, 생활하면서 만나는 이들이 모두 미국사람들이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 말을 못할 뿐 아니라 배우려는 노력도 않는 저들에게 묻고 싶었다. 부모가 한국 사람인 너희들은 대체 어느 나라 백성이냐? 그래서 본 교회에서는 기본

어릴 때 김치를 많이 먹던 어른세대들은, 아무리 비싼 스테이크를 앞에 두고서도 김치를 찾게 된다. 혹자는 한국사람들의 DNA속에는 고춧가루가 들어 있다고 말하기도 한다. 이유는 간단하다. 오랜 시간 반복해서 먹어왔기 때문이다. 좋은 것은 빠속 깊이 새기라는 말이 있듯이, 한글 교육에 몰입해야 한다. 결단하지 않으면 얼굴은 한국사람인데 국적불명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어 스스로도 정체성의 방향을 겪을 것이 분명하다. 의지와 결단이 필요하다. 변화는 어렵다고 말한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 변화는 믿음에서 나오고 그 믿음은 행동을 수반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셀비치사랑교회 / (310)749-0577
TLspc0316@gmail.com

Q: 영국이나 유럽이 바이킹족들의 후예라고 하는데 해적들이 유럽을 정복했는데 야만인이 그들이 어떻게 기독교인이 되었는지요?

- 실비치의 이희은

바이킹의 기독교화

A: 바이킹의 원조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입니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국기가 십자가입니다. Viking의 'vik'는 바다의 협곡인 만에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바이킹들은 인구가 늘어나면서 자기들이 사는 지역이 좁아 유럽 각지로 진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항해술이 뛰어나고 상업에 주로 종사하였으나 유럽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약탈하였기에 바이킹족, 해적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들은 항해술이 뛰어나고 이들의 특징은 '무자비'였습니다. 약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죽이고 여자들은 납치해 노예로 팔았으며 마을 전체를 불사르는 초토화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유럽에서 8세기부터 11세기는 바이킹으로 인해 '공포의 시대'를 이루었으며 당시 기독교인들의 기도에는 "주여, 북방 야만인의 노여움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주소서"라는 말이 꼭 포함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1) 덴마크계는 바이킹들은 프랑크 잉글랜드로 향해 리더인 율로가 프랑스 서북부에 912년에 노르망디 공국을 세웠고 1066년에는 영국에 노르만 왕조를 세웠고 노르만족은 다시 이태리로 방향을 바꾸어 진출하여 시칠리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2) 노르웨이계는 아이슬란드, 그린 랜드에 도착하여 무리 중 일부는 북아메리카까지 진출했습니다. 3) 스웨덴계는 러시아에 상륙하였는데 러시아에서는 노르만족을 루스 인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루스 인은 오늘날 러시아인 벨라루스인, 우크라이나인의 기원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드는 데는 북유럽의 정치력이나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었고, 해적들에게 강제로 끌려간 북유럽 기독교인 어머니들과 여성들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이킹족들에게 남편과 자녀들이 살해되고, 재산을 탈취당한 후 강제로 끌려간 북 유럽의 아내자들은 원치 아니한 바이킹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바이킹의 아내가 된 기독교 여성들은 처음에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면서 분을 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탄식하는 처지를 단념하고 원수 같은 남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해적 짓을 당장 그만둘 것을 강권했습니다. 그러나 바이킹족 남편들은 좀처럼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고, 복음을 받아들여도 않았을 뿐 아니라, 해적의 짓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런 사이 슬하에 바이킹족들과 북유럽 기독교 여인들이 아내 사이에서 자녀들이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유럽 출신 기독교 여성들은 작전을 바꾸었습니다. 처음엔 기성세대인 어른 세대와 남편들을 복음화하여 해적의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하려 했으나 실패한 후, 자신들의 슬하에서 태어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올바른 삶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세월이 흘렀고 세대가 바뀌었습니다. 북 유럽 출신 기독교인 어머니로부터 교육받은 자녀들은 누가 해적 짓을 하지 말라는 말을 하지 않았어도 해적의 짓이 중단되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 볼 때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럽은 바이킹의 후예들이 유럽을 기독교의 나라로만들었고 기독교 문화는 세계의 선진국으로 나라를 꽃피우고 발전시켰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한글교육의 특별한 관점

-신앙교육, 자세교육, 사명교육-

강조점을 함께 나누면서 작은 자국이 되기를 소망한다.

한글교육은 신앙교육

본 교회에서는 EM 예배가 한국어 예배와 같은 시간에 다른 건물에서 드러진다. 많은 교회에서, 영어가 편리한 중고등학교생부터 자유롭게 참석하도록 허용하지만, 본 교회는 그렇지 않다. 부모중에 한 분이 외국인이면 선택하도록 하고, 부모 모두가 한국사람일 경우 무조건 의무적으로 한국어 예배에 참석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그래서 EM 예배는 성인 영어권이 참석 대상이 되거나, 아시아인을 포함한 다양한 외국인들이 주류가 되어있다.

교회 역사를 지나면서 참 잘한 결정이었다고 생각된다. 처음 오시는 분들 가운데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의 불평으로 부모 가운데 불만도 있었지만, 기존 아이들의 다른 모습을 보면서, 이제는 당연한 듯 그렇게 따라온다. 또, 이런 규정이 정착이 되면서, 중고등부 자체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예배를 시작하기 전, 반장 아이가 전화를 박스에 모두 수거하고 예배를 마치면 다시 나누어주기를 반복한다. 예배에 대한 강조점을 알아듣고는 스스로 그렇게 정한 것이다.

물론, 처음에는 같은 한국말 이어도 본인의 경상도 지역 사투리로 인해 애들이 난리를 했다. 알아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 영어가 더 편하다는 것이다. 부모들까지 나서서 영어예배 드리는 EM으로 보내달라고 했다. 그러나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하는 아이들에게 당당하게 말했다. 어른들도 알아듣지 못하면서도 알아듣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예배는 알아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이 있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담임목사님이 누군지도 모를 낯선 사람 정도로 쳐다보며 인사도 하지 않고 자세가 엉터리인 것을 보았다. 그래서 물어보니, 역시나 담임목사의 설교를 듣지 않으니, 저들이 담임목사를 목자로 여기고 대하지를 못 하더라는 것이다.

한글교육은 자세교육

패밀리 워십 같은 이름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과거 20년 전만해도 아주 당연한 듯이 분리된 눈높이 교육을 강조했다. 그런 흐름속에서 당시의 심각한 반대에도,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이렇게 하도록 한 이유가 있었다. 천천히 대도시에 사는 분들이 있었는데, 주일이어도 대부분 이민 교회가 그렇듯이 오전 예배

적인 예절의 인사를 가르치고 강조하며 때로는 야단을 친다. 스스로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 모학선생 역할을 해 주는 것이다. 태평양을 건너 미국까지 와서 자식교육을 하는데, 좋은 명문대학을 가는 것으로 부모의 역할을 다한다 할 수 있을까? 근본적인 회의를 가지게 된다. 부모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말을 하는데, 자녀들은 이 땅이 미국이라는 이유만으로도 한국말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너무나 관용한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한글, 부모의 사고전환

부모들, 특별히 엄마들의 사고전환이 필요하다. 부모세대가 영어에 대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보니, 미국에 와서도 아이에게 영어유치원을

함으로 마침내 열매를 보게 한다.

한글교육은 사명훈련 교육

언어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게 된다. 언어를 통해, 문화, 역사, 사회, 관습 등을 함께 익혀가기 때문이다. 정체성은 또한 그 민족과 사람에게 허락한 고유한 사명을 깨닫게 한다. 한글 교육은 부모와의 소통이라는 단계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민족 북한에 대한 하나님의 사명훈련, 선교훈련의 한 부분이 되는 것이다.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2세대들이 부모세대의 그 언어를 가지고서 활발한 소통을 이루게 될 때 북한에서의 효과적인 복음전파와 장래 민족공동체의 융성에 크게 기여



한번으로 끝을 내더라는 것이다. 그리고 예배후에는 여러 스케줄 잡기에 분주한 모습을 보았다. 패밀리 타임, 디너 약속, 골프 등. 의문이 생겼다. 유일하게 한번 주일 오전 예배를 드리는 데, 자녀들과 분리되어 예배를 드리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

고집하면서 어린 아이에게도 한글교육의 좋은 기회를 멀리 하는 경우를 본다. 무지와 근시안적인 선택임이 분명하다. 부모로서 아이들이 부모 품에 있을 때, 확실하게 붙잡고 가르쳐야 한다. 당연히 자식들에게 요구해야 한다. 남들보다 조금 늦게 이민였다 생각하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하는 바가 될 줄로 믿는다. 언어를 배우지 못하고, 어떻게 북한선교의 책임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결국, 한글교육은 부모세대가 노래하던 통일한국을 향한 북한 복음화를 위한 필수적인 도구가 되는 것이다.

100% 한국인 100% 미국인

우리는 물질의 유산이 아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서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 세대간의 단절과 정체성의 상실을 막기 위해서도 한글을 가르쳐야 한다. 특별히, 2세대를 Half & Half(50:50)으로 표현하지만, 부모세대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200%(100:100) Korean-American으로 양육하여 민족

조국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 받는 자녀들을 이민의 땅에 살면서도 흥통하던, 요셉/다니엘/에스더 같은 귀한 인물들이 배출되기를 기도드립니다.
davidnjon@yahoo.com

사/모/단/상



송정임 사모 (버지니아 St. John's UMC)

결실의 햇살

'입추'가 지나도 한참 지났는데 아직 이렇게 더위가 가시질 않는다며 온 가족 건강에 유의하라는 당부로 한국에 계신 어머니와 영상통화를 마무리했다. 전화를 끊고 도대체 입추가 언제였는지 달력을 찾아보니, 한 달 전 8월7일이 올해의 입추였다. 입추(立秋)는 가을에 들어

선다는 의미로서 24절기에서는 이날부터 입동(立冬) 전까지 가을로 구분한다. 입추가 되었으니 여름이 끝나고 가을로 접어들었다는 뜻인데 아직 한국이나 미국은 늦더위가 한참이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어느새 인가 입추가 지나면서 이른 아침이나 밤이 되면 비교적 선선한 바람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다.

입추는 여름의 흠일도 끝나고 이제 서서히 가을 채비를 준비해야 할 시기다. 옛날 중국에서도 입추의 15일간을 5일씩 3후(三候)로 나누어 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고 ② 이슬이 진하게 내리며 ③ 쓰르라미가 온다고 하였다. 농촌에서는 참깨-옥수수를 수확하고, 일찍 거두어들이는 밭에는 김장용 배추와 무를 심기 시작한다. 태풍과 장마가 자주 발생해 논에서는 병충해 방제가 한창이고, 태풍으로 쓰러진 벼를 일으켜 세우느라 분주하다. 이 무렵부터 논의 물을 빼기 시작하는데, 1년 벼농사의 마지막 성패가 이때의 날씨에 달려 있다고 할 만큼 중요한 시기이다.

-출처 : 한국강사신문-

어느 한 계절, 농부에게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 않겠지만 특별히 가을은 1년 벼농사의 마지막 성패가 달릴 만

큼 중요한 시기라는 기사의 마지막 줄을 한참 곱씹어 읽었다. 봄부터 시작하여 뜨거운 여름을 이겨내고 가을 햇살에 영글어갈 알곡들을 기다리는 농부의 마음만큼 간절하고 뜨거운 기다림은 없을 것이다.

여름동안 교회의 많은 사역과 프로그램들이 아이들 방학과 휴가를 맞아 다음세대에 집중하고 있다. 유 초등부 학생들을 위한 VBS와 각종 캠프, Youth 학생들을 위한 단기선교와 봉사활동 프로그램, 또 청년부들이 함께하는 수련회와 선교지 방문 등이다. 교회에서 예배와 성경공부를 통해 배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직접 실천하고 참여하며 은혜를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다.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자녀들이 여름동안 교회에서 참여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예배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로 만나는 친구들과 선생님 그리고 이웃에게 전하고 섬기면서 열매를 맺게 하는 충분한 햇살이 되리라 믿는다.



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면서 많은 교회들은 다양한 성경공부와 소그룹모임, 기도모임 등의 활발한 성인 성도님들을 위한 프로그램과 사역들이 시작된다. 자녀들이 열심히 참여했던 것처럼 부모님들도 모이고 배우며 섬기는 일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소망한다. 우리의 영적 열매가 단단하게 영글어가기 바라시는 하나님 은총의 햇살이 어느 때보다 뜨겁게 우리에게 향하고 계시기를 믿는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서 호감을 샀다. 주님께서는 구원 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 하여 주셨다.

사도행전 2장 46절~47절 표준새번역

songjungim@gmail.com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최소 47명 사망, 206명 부상... 러시아, 우크라이나 미사일 공격

러시아가 3일 우크라이나 중부 군사 교육시설을 공습해 최소 47명이 사망하고 20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CNN이 우크라이나 당국을 인용해 보도했다. 직전에 보고된 사망자 41명, 부상자 180명에서 최소 인명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늘어났다. 2022년 2월 러시아가 본격 침공을 시작한 이래 단일 공격으로는 최대 사상자를 낸 사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앞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통해 러시아가 중부 폴타바를 공습해 최소 41명이 사망하고 180명 이상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해 군사통신연구소 건물에 파괴했다고 "러시아 놈들은 이번 공격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에 사용된 무기의 종류를 보면 공습경보가 울린 뒤 사람들이 몸을 숨길 시간이 거의 없었다고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설명했다.

우크라이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게시된 사진에는 먼지와 잔해로 뒤덮인 시체 여러 구가 바닥에 누워 있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그 뒤에 있는 심하게 손상된 큰 건물이 보였다고 한다. 국방부는 텔레그램에서 "연구소 건물 중 하나가 부분적으로 파괴됐고 많은 사람이 잔해 아래에 갇혔다"며 "구조대와 의료진의 협력 덕분에 25명이 구조됐는데 그중 11명이 잔해에서 건져졌다"고 전했다. 구조대원들은 현재 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러시아는 아직 이번 공격에 대해 아무 언급을 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강화했다. 전쟁을 시작한 지 2년 반 만이다. 지난주 우크라이나는 개전 이후 최대 규모 폭격을 받았다. 전날인 2일에는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 키이우를 겨냥해 큰 폭발이 일어났다. 우크라이나는 주말 사이 드론을 158대 이상 투입해 러시아 모스크바 인근 정유공장과 발전소를 파괴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에 방공망 강화를 재차 요구하며 동맹국들이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을 공격하는 데 장거리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에는 방공 시스템과 미사일이 필요하다"며 "어딘가의 창고에 돌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날 공격을 받은 폴타바는 키이우에서 남동쪽으로 약 300km 떨어진 지역이다. 가장 가까운 러시아 국경까지는 120km 거리다. 이 지역 필립 프로닌 주지사는 많은 주민이 부상자를 위해 한혈했다고 전했다. 지방 당국은 "폴타바에 끔찍한 날"이라며 3일간의 애도 기간을 선포했다.

美 경합주 7개주 여론조사...해리스 3개주, 트럼프 1개주 우위

미국 대선(11월 5일)이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승패를 좌우할 7개 경합주 중 러스트벨트(북동부 공업지역) 3개 주에서 민주당 후보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이 여론조사 평균을 기준으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3개 주는 분석업체마다 여론조사 평균이 엇갈리는 혼전이다.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노스캐롤라이나주 1곳에서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2일 "모든 여론조사에서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고 있다"며 "여론조사 평균에 따르면 핵심 격전지 7개 주 중 미시간·펜실베이니아·위스콘신 등 3개 주에서 해리스가 트럼프를 앞서고 있다"고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선거분석사이트인 파이브시티에이,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실버볼레틴 3곳이 분석한 여론조사 평균을 인용했다. 선거분석사이트들은 여러 여론조사의 샘플 크기와 정확도, 실시 시점 등을 종합 분석해 평균을 낸다.



해리스는 러스트벨트 3개 주에서 우세하다고 분석기관 3곳이 같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위스콘신(선거인단 10명)에서만 3%포인트 이상 앞설 뿐, 나머지 주는 1~2%포인트 내외로 쏠리는 조박빙 상황이다. 폴리티코는 "이 지역(러스트벨트)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여론조사의 정확도가 가장 낮고, 특히 트럼프가 과소평가된 주"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은 2016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에서 3개 주 모두에서 트럼프를 앞섰지만, 실제 선거에서는 졌다. 조 바이든 대통령도 2020년 대선 당시 러스트벨트에서 압승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미시간(15명)에서만 2.8%포인트 승리했을 뿐, 펜실베이니아(19명) 1.2%포인트, 위스콘신 0.6%포인트 차이로 간신히 이겼다.

또다른 경합주인 애리조나·조지아·네바다 등 선벨트(남부지역) 3개 주는 선거 분석기관마다 여론조사 평균이 서로 다를 정도로 혼전 양상이다. 선거인단 11명이 걸린 애리조나는 파이브시티에이 분석 기준으로 해리스가 45.6%를 기록, 트럼프(45.4%)는 0.2%포인트 앞서고 있다. 하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 실버볼레틴 조사에서는 오히려 트럼프가 해리스를 0.5% 리드하고 있다. 조지아(16명)도 파이브시티에이와 실버볼레틴 기준으로는 해리스가 각각 0.4%포인트, 1.1%포인트 앞서지만 리얼클리어폴리틱스 기준으로는 트럼프가 0.2%포인트 이기고 있다. 네바다(6명)도 분석기관마다 해리스 우위 또는 동률로 분석이 엇갈렸다.

트럼프는 2016년과 2020년 대선에서 모두 승리한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여론조사 평균으로 앞서고 있다. 리얼클리어폴리틱스의 여론조

사 평균으로는 0.6%포인트, 실버볼레틴 기준으로는 0.3%포인트 이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리핀에도 태풍 상륙... 최소 10명 사망에 항공편 마비

필리핀을 강타한 태풍 '야기' 영향으로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 사망 사고가 속출하고 교통망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2일 dpa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재난당국은 이날 수도 마닐라 등 전국 각지에 폭우가 내려 산사태 등으로 최소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마닐라 동쪽 안티폴로에서 산사태가 일어나 10대 형제 2명과 20대 임신부가 숨졌다. 이 지역에서 4세 아동 등 3명이 홍수로 익사했고, 1명은 실종 상태다. 세부에서도 산사태로 2명이 흙더미에 묻혔고 부상자 10명이 발생했다. 나가에서는 침수된 가게를 살펴본 남성이 감전사했다. 8개월 된 여아는 물에 빠져 숨졌다.

약전후에 국내선 항공편 다수가 취소됐고, 동부·중부 지역 여객선도 운항을 중단했다. 현재 승객 2200여명의 발이 묶여 있다. 필리핀 기상청은 오는 8~9일경 태풍이 최고 등급으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최대 시속은 90km다. 정부는 피해 지역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고 공공기관을 폐쇄하는 등 조치에 나서고 있다.

필리핀에는 매년 평균 20개 안팎의 태풍이 상륙하며, 이로 인한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 7월에도 태풍 '개미'로 인한 산사태·홍수로 최소 30명이 숨졌다. 2013년 11월에는 대형 태풍 '하이엔'이 강타해 7300명의 사망·실종자를 냈다.

트럼프, "마리화나 합법화" 시사... "중도층 잡기" 분석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개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데 찬성할 것을 시사했다. 마리화나 합법화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1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에 플로리다주의 개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투표와 관련해 "이것이 다른 많은 주에서 합법적일 때 플로리다에서 누군가가 범죄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좋은 실든 이 조치가 찬성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개인적으로 쓸 정도의 마리화나를 소지한 성인들을 체포하는 데 납세자의 돈을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플로리다주는 오는 11월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는 주민투표에서 21세 이상이 기호용으로 마리화나를 구입, 소지하는 것을 합법화할지 등을 묻는다. 플로리다주는 2016년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퓨리서치센터에 따르면 개인용과 의료용 대마초는 미국 24개 주에서 합법이다. 14개 주에서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개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시사하면서도 보수적 유권자들을 의식한 듯 "합법화는 정확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공공 공간에서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규칙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민주당이 운영하는 많은 도시에서와 마찬가지로 가는 곳마다 마리화나 냄새를 맡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용 마리화나 합법화 입장은 민주당 소속 론 드산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는 물론 공화당 고위 인사들과도 다른 것이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낙태 금지 기간을 '임신 6주 후'로 정한 플로리다주의 법을 '임신 24주 후'로 바꾸는 등 다른 주민투표 사항에 대해서 "6주는 너무 짧은 것 같다"고 얘기하기도 했다. 그는 보수층이 반발하는 시험관 시술 무상 지원도 약속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낙태, 임신, 마리화나 등의 이슈에서 방향을 수정하며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 한다는 분석이다.

'반인민' 소송물이에... 독일 극우 정당, 지방선거 약진

옛 동독 지역 두 곳에서 치러진 독일 주의회 선거에서 나치 패망 이후 79년 만에 처음으로 극우 정당이 승리했다. 온건한 이념 정책을 펴면서 민생고를 해결하지 못하는 중도 성향의 주류 정당들에 환멸을 느낀 동독계 민심이 옛 서독 지역과 멀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독일 재계에서는 극우와 급진좌파 포퓰리즘의 합작으로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도이체벨레방송은 1일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튀링겐 주의회 선거에서 1위, 인근 작센 주의회 선거에서 2위를 차지했다"며 "극우 정당의 지방선거 승리는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AfD는 튀링겐에서 32.8%를 득표해 지역 내 제1당이 됐다. 작센에서는 30.6%의 득표율로 기존 다수당인 중도 우파 기독교민주당(CDU)을 불과 1.3% 포인트 차이로 추격했다. 집권 연정을 구성한 올라프 숄츠 총리의 사회민주당과 녹색당·자유민주당은 두 지역에서 모두 급진좌파 성향 신생 정당인 자라바켄크네히트동맹(BSW)에 제3당 지위마저 빼앗기고 참패했다. 튀링겐과 작센은 1990년 독일 통일 전까지 동독에 속했던 지역이다. 낙후된 경제와 반인민 정서가 맞물린 두 지역에서 AfD는 민족주의를 앞세워 표심을 끌어당겼다. 특히 AfD의 튀링겐 지역 대표인 비외른 회케는 신나치주의를 선포하는 듯한 연설로 유럽 전역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파이낸셜타임스는 AfD의 승리에 대해 "동독계 주민들이 경기침체와 높은 인플레이션,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해 불만을 나타낸 것"이라며 "과거 공산주의 동독에 속했던 두 지역 주민 다수는 중도 주류 정당들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AfD 득세의 배경을 경제적 원인에서만 찾을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독일 정부가 올해 초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사회적으로 뒤쳐졌다고 느낀 동독계 주민은 19%였고, 80% 이상은 격차를 느끼지 못한다고 답했다. 동독 출신 사회학자 슈테펜 마우스는 영국 가디언에 "동독인의 정체성을 자극한 AfD의 선거전략이 적중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가디언은 "AfD가 튀링겐과 작센에서 보여준 성공은 동·서독이 서로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선교 한국 그 역사를 찾아서

-8.15 해방 전 한인 선교사

손상웅 목사
(한미교회사연구소 소장)



198. 김찬일(1879-1935)

김찬일은 1879년에 한국에서 태어났다. 결혼한 후 정확한 위치를 알 수 없지만 '순안'에서 거주하던 그가 하와이 노동 이민선 시베리아 선박을 타고 24세가 되던 1903년에 단신으로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했다. 그는 로마자 알파벳으로 자신의 이름을 Chan Il Kim 또는 Chan Eil Kim으로 썼다.

그런데 하와이에 내리지 않고 하와이를 거쳐 김찬일은 그 해 샌프란시스코(상항)에 도착하였다. 그해 9월에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이대위, 박성겸, 김성무, 박영순, 장 경, 김병모, 전동삼, 박승지와 함께 김찬일이 환란 상부를 목적으로 미주 최초의 한인 단체인 친목회를 조직하였고, 친목회를 중심으로 호텔 로비에 예배를 드렸다.

위의 친목회 예배가 미국 북감리교 감리사 H.B. 존스 목사에 의해 50여 명이 모여 1905년 7월에 상항 한인 감리교회로 조직되었다. 문경호와 방화중이 차례로 전도사로 부임하였을 때 김찬일도 이 교회에 출석했다. 미국 북감리교회가 선교 정책을 조정하면서 잠깐 중단되었다가 미국 남감리교회가 전 내한 선교사였던 C.F. 리드 목사를 파송하여 양주삼을 중심으로 30여 명이 모여 1906년 12월에 상항 한인 감리교회를 다시 설립하였다. 그때도 김찬일은 이 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인다.

1905년 4월에 친목회를 확장하여 환란 상부에 더하여 동쪽 상애와 항일 운동을 목적으로 안창호가 중심이 되어 공립협회가 조직되었다. 그런데 김찬일이 1904년 2월에 친목회를 떠났다가 1905년 12월에 공립협회가 가입하였고, 이듬해 3월에 공립협회 상항 지방회 응접위원 강영설이 사면함에 따라 김찬일이 응접위원으로 피선되었다가 그해 10월에 유성숙과 함께 구제위원으로 선임되었다.

김찬일은 1908년 5월에 상항에서 북동쪽으로 90마일 떨어진 삭도 공립병원에서 별세한 정한소의 장례비 얼마를 기부하였고, 그해 8월에 상항에서 남쪽으로 약 190마일 떨어진 중가



대동고아원 (신한민보, 1911년 7월 5일)

주 프레스토 병원에 입원하였다가 임원비가 부족하여 그 지방 김원택이 운영하는 여관으로 돌아간 조병열을 위하여 병원비 1원을 후원하였다. 그해 11월에 대동 고아원에 5원 이상 후원하기로 하였다. 평북 선전에 설립된 대동 고아원의 주무원은 미주에서는 이병준, 김필사, 장성산이었고, 한국에서는 양전백과 최관을 선교사였다.

삭도 한인 감리교회 예배 인도자

김찬일은 1910년에 상항에서 세크라멘토(삭도)로 이주했다. 그는 삭도 한인감리교회에 출석하면서 본 교회 권사로 파송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본 교회는 1907년 6월에 양주삼 순회 전도사가 삭도 공립관의 한 방에서 주일 예배를 인도하면서 조직되었다. 그래서 구역 순회 전도사가 방문하지 않았을 때 김찬일이 예배를 인도하고 교인을 심방하였을 것이다.

1912년 2월에 김찬일은 북가주 아일론에서 한인 노동자 약 70명을 채용하여 아스파라가스 농장을 주선하였고, 그해 8월에 김윤택과 함께 삭도 인근에서 흙 농장을 주선했다. 그해 9월에 김찬일은 신한민보에 기부하였고, 그해 10월에 대한인 국민회 삭도 지방회 유지를 위하여 후원하였으며, 이듬해 2월에는 국민 의무금을 냈다.

1914년에 황사용이 삭도 구역 순회 목사로 파송되었으나 그가 방문하지 않았거나 이응목 전도사가 출타했을 때는 김찬일 권사가 예배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해 6월에 그는 대한인 국민회 삭도 지방회 경찰원으로 활동하였다.

상항 옥 스트리트 1053번지에 있던 상항 한인 감리교회에서 1915년 6월 26일 토요일에 제1차 한인교회 지방 연회가 개최되었다. 김찬일은 삭도 한인 감리교회 대표로서 이응목과 함께 참석하였고, 아들 외에도 지역 교회 대표가 모였다. 이대위 목사가 개회 예배를 간단하게 인도하였고, 토요일 오후에는 기도회로 모여 2시간 동안 기도하였다. 임준기를 서기로 선출하고, 회무에 들어가 먼저 각 지방 교회 보고가 있는 후 북가주 한인 감리교회 사역에 관한 모든 문제를 의논하였다. 이튿날 주일 예배 설교는 임준기가 담당하였고, 예배 후 이대위 목사가 성찬식을 인도하였다. 주일 저녁 폐회 예배에서 이대위 목사가 사전을 소개하면서 '그리스도의 생애'라는 주제로 설교했다. 그해 황사용을 북가주 순회 목사로, 이응목과 양주은을 삭도 전도사로 파송하였다. 그해 삭도 한인 감리교회에는 28명의 세례 교인과 13명의 학습 교인이 있었다.

삭도 한인 감리교회를 위하여 순회 목사 한 명과 지방 전도사 두 명이 있었으므로 김찬일이 예배를 인도할 기회가 거의 없었을 것이나 권사로서 활동하였을 것이다. 그해 8월 삭도 한인 감리교회 웨일스 청년회에서 통상회를 열고 임원을 선정하였다. 김찬일이 회장으로 피선되었고, 그의 선임된 임원은 전도국장 양계현, 인제국장 김계선, 학문국장 김익은, 교제국장 김홍균, 회계국장 이신환 등이었다.

1916년에도 황사용 목사가 순회 선교 목사로 파송되었다. 그해 삭도 한인 감리교회의 세례 교인은 35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19명이었다. 중국 산둥 선교사를 역임했던 김영훈 목사가 1917년에 삭도 한인 감리교회로 파송되었고, 그해 출석 교인은 51명이었고, 46명이 학습 교인이었다.

1917년 10월에 상항에 입항한 차이나에서 백년 가연을 맺을 7명의 사진 신부가 내렸다. 신한민보에 따르면 "복 있는 사람의 일이라 서해 하지 중에 바람조차 고요하고 결혼한 낭자의 상륙도 예 없이 쉽게 되었다. 독경대 금보장 같은 예물이라도 하루 안에 준비하여 그달 3일 하오 8시에 모두 한인 예배당에 나아가 '부자 되나 가난하나 서로 잊지 않겠소'의 맹서를 교환하고 오렌지 물로... 향기를 뿜는 가운데 골드 링을 끼여 주었는데" 상항 목사 이대위의 주례하에 김찬일씨도 김재신 여사와 결혼하였다.

김영훈 목사가 1918년 10월에도 삭도 한인 감리교회에 파송되었다. 그달에 세례 교인은 70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7명이었으며, 유아세례 교인은 3명이었고, 주일 학교에 25명이 등록하였으며, 지난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지출한 금액이 155달러였다.

그해 북가주 월로스에서 이민선과 이 인의 아내가 별세했다. 그해 9월에 미국 뉴멕시코주에서 다년 거주하던

김영수가 증가주의 스톡턴과 다뉴브에서 포도를 따다가 월로스의 이민선 농장에서 일하려고 온 지 며칠 되지 않은 때에 아침을 먹고 자기 숙소로 가는 길에 열차를 달지 않은 기관차에 치여 치명상을 입고 별세하였다. 그래서 김찬일은 그의 장례비를 위하여 여러분과 함께 기부하였다. 두 달 뒤 11월에 월로스에 거주하던 이 인의 부인이 별세하였다. 김찬일은 전도사 양주은 등 8명과 함께 상주가 되어 월로스 백인 감리교회에서 커터 목사의 주례로 장례예배를 드리고, 한인 10여 인과 백인 남녀 36명이 모인 가운데 커터 목사가 하관 예배를 인도한 가운데 백인 부인 성가대가 조가를 불렀고, 설교한 후 백인의 개인 묘지에 그녀를 안장했다.

이듬해 3월에 김찬일에게 불행이 다가왔다. 스페인 독감으로 아들 상준이 세상을 떠나 그 비감한 눈물이 마르지 않았는데, 다음 달에 둘째 아들도 세상을 떠나 하늘이 아득한 중 그해 8월에 아들을 낳아 위로받았다.

1920년에 김영훈 목사와 양주은 전도사와 김홍균 전도사가 파송되었고, 그해 10월 세례 교인은 67명이었고, 학습 교인은 5명이었고, 유아세례 교인은 5명이었으며, 주일 학교에 교사가 4명이었고, 주일 학교 학생은 28명이었으며, 웨일스 청년회에 70명이 등록하였다. 그해 교회 비용으로 883.52 달러를 지급하였다. 임정구 목사가 1921년에 순회 선교사로 파송되었고, 그해 10월 세례 교인은 63명이었고, 유아세례 교인은 3명이었고, 주일 학교 교사가 12명이었고, 주일학교 학생은 52명이었으며, 교회 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은 36달러였고, 기타 목적 헌금은 81달러였다. 1922년에는 따로 지정된 사역자가 없었으므로 김찬일이 예배를 인도하였을 것이다. 그해 교세는 지난 2년보다 열세였다. 세례 교인은 40명이었고, 주일 학교에 3명의 교사와 20명의 학생이 있었으며, 교회를 위한 지출액이 50달러였고, 기타 헌금이 200달러였다.

1923년에 김찬일은 삭도에서 상항을 거쳐 오클랜드로 이주하였다. 그의 권사직은 짧으면 2년간이었지만 정황상 10여 년간 권사직을 감당하였을 것으로 본다. 그는 교회 사역뿐만 아니라 대한인 국민회에서도 활동하였다. 삭도 지방회에서 두 번이나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법무원 등으로 활동하였고, 삼일절 기념식에서 축사하였고, 매년 국민의무금을 냈다. 그리고 기부도 잊지 않았는데, 1915년 10월에 삭도 지방회 경비를, 이듬해 11월에 상항 청년회가 주선한 원산 학생 보조금을, 1917년 8월에 신한민보 가족 은행채 후원비를, 1922년 2월에 대한인 국민회를 위한 특별헌연을 기부하였다.

1923년 초, 삭도에서 상항으로 이주하여 차이나타운에서 몇 개월간 이발

소를 연 김찬일은 그해 7월에 상항 인근 오클랜드로 이주하여 임석현의 이발소를 인수하였고,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했다. 임정구 목사가 1917년부터 오클랜드를 포함하여 맨티카와 스타튼 지역의 순회 선교 목사로 파송되었고, 김찬일이 나성으로 이주하던 1927년까지 본 교회를 섬겼다. 오클랜드 한인 감리교회 교인수는 맨티카 한인 감리교회와 스타튼 한인감리교회가 합하여 보고되었는데 세례 교인은 1923년에 80명, 1924년에 134명, 1925년에 80명이었다.

오클랜드에 온 지 2년이 되던 때 김찬일이 이스트베이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하였고, 수술한 지 2년 후 "이발소를 헐값으로 사시오"라는 광고를 낸 후 전형균에게 매매하고 그해 6월에 로스앤젤레스(나성)로 이주했다. 1920년 말 나성에 거주하는 한인은 참수이 도매업과 동서양 식당을 하는 자도 있었으나 주로 식물상점과 과채업을 운영하였는데, 김찬일은 과채업을 시작했다. 그가 나성 한인 감리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이거나 확인할 길은 없다.

권사로 사역하던 삭도에서 지인이었던 이 인이 1928년 4월에 극단적 선택을 하였다. 소년 서희 문예구락부에서 1914년 봄에 국문 풍월 글자를 붙였는데 글자는 '꽃'이었고 운사자는 '고도노'였다. 김찬일 등 31명이 제출하였는데 아깝게도 김찬일은 등수에 들지 못했으나 이 인의 글이 신한민보에 소개되었다. 북은임순반열고 능히나 뉘블니니 소래업시우서도 네마음을뉘야노. 김찬일은 김배혁과 함께 사업시간이 없었을 텐데 장례비를 거둬 이 인의 장례식을 유감없이 치렀다. 5원을 부조한 '친구'가 김찬일이 아닌가 싶다.

이듬해 1월에 김찬일은 자동차 사고를 당했으나 경상이어서 다행이었는데, 그해 7월에 나성 국어학교 기숙사에 김찬일이 5원을 기부했고, 이듬해 4월에 나성 지방 한인 동지회가 주최한 내지 학생 독립 시위 운동 후원을 위하여 5원을 기부했다.

김찬일은 1935년 2월에 56세의 일기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 그런데 에버그린 공원묘지에는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44개의 화환이 둘러선 가운데 20대의 자동차에 분승하여 찾아 온 친구들의 눈물로 장례예배를 마친 후 에버그린 공원묘지에 영원히 잠들었다. 그가 두고 간 젊은 부인과 두 자녀의 슬퍼하는 모습은 참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아들 김태준이 모 신문사에 응모한 그림이 3등에 입선하였고, 수 주 후에는 1등에 당선되어 아버지를 먼저 보낸 가족에게는 위로가 되었다.

damien.sohn@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p>감사인교회</p> <p>담임목사: 구봉주</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어예배: 오후 7:0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Tel: (714) 521-0891, www.thanksgivingchurch.com 68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p>나성순복음교회</p> <p>담임목사: 진유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한국어예배: 오후 7:00 영어예배: 오전 9:30, 11:30</p> <p>lagusa@yahoo.com / www.lagc.com Tel: (323) 313-4499,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p>남가주든단교회</p> <p>담임목사: 김홍철</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M, Youth: 오전 11:00 주일 학교: 오전 11:00 한국어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6:00(화-금)</p> <p>Tel: (213) 481-2779 / facebook.com/srscsa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p>	<p>남가주사랑의교회</p> <p>담임목사: 노창수</p> <p>주일 1부예배: 오전 7:05 주일 2부예배: 오전 9:0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5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영어예배: 오후 7:30 1부: 오전 9:10 2부: 오전 11:10</p> <p>Tel: (714) 772-7777, Fax: (714) 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p>대동장로교회</p> <p>담임목사: 김정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9:30, 11:00 새벽기도: 오전 6:00(화-토) 금요찬양예배: 저녁 7:30</p> <p>Tel: (714) 719-2244, www.dkpc.org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p>	
<p>미주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덕</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 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p>미주평안교회</p> <p>담임목사: 임승진</p> <p>주일 1부: 오전 8:30 2부: 오전 9:45 3부: 오전 11:00 (청년부) 4부: 오후 1:45 새벽기도(화-토): 오전 6:00</p> <p>Tel: (213) 381-2202, www.mjca.org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p>복음장로교회</p> <p>담임목사: 이광형</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626) 894-6214 1751 W. La Habra Bl., La Habra, CA 90631</p>	<p>베델한인교회</p> <p>담임목사: 김한오</p> <p>주일 1부: 오전 7:15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성인영어예배: 오전 9:15, 11:30 일일예배: 오전 1:30-4:00(화-토) 주일학교: 오전 9:15, 11:30</p> <p>Tel: (949) 854-4010 / behel@hkc.org / www.hkc.org 18700 Harvard Ave., #A Irvine, CA 92612</p>	<p>세계소망교회</p> <p>담임목사: 오세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p> <p>Tel: (213) 235-7691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p>세계선교교회</p> <p>담임목사: 김창섭</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교회학교예배: 오전 11:00 E.M. 예배: 오전 11:00 금요예배: 매일 저녁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213) 387-1227 / www.wjcc.org / worldmissionchurch27@gmail.com 327 Menlo Ave, Los Angeles, CA 90006</p>
<p>실비치 사랑교회 (Seal Beach Sp-Fang Church)</p> <p>담임목사: 이정현</p> <p>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6:30</p> <p>Tel: (310) 749-4766 실비치 리저레츠 Clubhouse 3 Lobby/주일 Clubhouse 3 room 1(1F)</p>	<p>열매교회</p> <p>담임목사: 김요셉</p> <p>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p> <p>Tel: (323) 737-3008, Cel: (213) 215-8523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p>	<p>엘피사역원</p> <p>원장: 박순송 목사 (LA북은연합감리교회합동목사) 상담사역: (월-금) 오전 10시-오후 4:30 사역대상: 1. 여성사역자 2. 교역원인도 여성리더 3. 목회상담 4. 가정사역 5. 말씀사역 6. 네트워킹사역</p> <p>Tel: (213) 700-9828, www.elpisafamily.org 1200 S. Manhattan Pl., LA, CA 90019</p>	<p>은혜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기홍</p> <p>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성경강화: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6:00(토) 일일예배: 오전 1:30-4:00(화-토) 24시간 온오프</p> <p>Tel: (714) 446-6202, www.graecm.com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p>주님세운교회</p> <p>담임목사: 박성규</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청년) 주일 학교: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화-토) 성경강화: 오후 7:20(금)</p> <p>Tel: (310) 325-4020, www.junichurch.com 17910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5</p>	<p>주님의영광교회</p> <p>담임목사: 신승훈</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0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화-금)</p> <p>Tel: (213) 749-4500, www.gccj.org 1801 S. Grand Ave., LA, CA 90015</p>
<p>좋은마을교회</p> <p>담임목사: 신원규</p> <p>주일예배: 오전 11:45 영어예배(청년/청년): 오전 11:45 송고부예배: 오전 11:45 주일학교: 오전 11:45 목요기도회: 저녁 8:00 새벽기도: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p> <p>Tel: (714) 646-9259, www.socalssamsungchurch.org 111W Las Palms Dr., Fullerton, CA 92835</p>	<p>코너스톤 교회</p> <p>담임목사: 이종용</p> <p>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p> <p>Tel: (310) 530-4040(CH), www.cornestonch.com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p>토렌스조은교회</p> <p>담임목사: 김우준</p> <p>주일 1부예배: 오전 8:00(분당) 주일 2부예배: 오전 9:45(분당) E.M. 예배: 오전 9:45(101호)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분당) K.M. 청년예배: 오전 2:00(분당) 수요예배: 오후 8:00(분당) 새벽예배: (화-토) 오전 5:30(분당)</p> <p>Tel: 310-370-5500, www.torancejoc.org 19850 Marine Ave., Torrance, CA 90503</p>	<p>평강교회</p> <p>담임목사: 송금관</p> <p>주일예배: 오전 11:00 나눔교과: 오후 1:00 TEE-용모로삼성(주일): 오전 9:30 화요 3.3기도회: 매일 둘째주 오전 10:30 목요 기도회: 오전 9:00 TEE-성경공회(금): 오후 7:30 새벽기도회(화): 오전 6:00</p> <p>Tel: 213-383-9136, pyongkangch@gmail.com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p>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회회를 찾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A: Tel: (323) 665-0009 lachpress@gmail.com NY: Tel: (718) 886-4400 nychpress@gmail.com info@chpress.com <p>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신문.</p>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변명혜 교수 (ITS 교수)

일상칼럼

편지

지난 일 월에 학교로부터 내가 담당하던 프로그램을 단기로 결정해서 교수직 연장을 안 해준다는 통보를 받았고 이번 8월 말로 학교 교수직이 끝났다. 오랜 교수생활에서 이사해야 할 짐으로 남은 것은 책과 강의노트다. 친구 교수는 은퇴하면서 다 버렸는데 이십 년 넘게 가르치며 준비해 온 강의 노트를 쉽게 버릴 수는 없었다. 책들은 그대로 책상 앞에 쌓아 놓았다. 강의 노트는 일단 차고에 내려 놓았지만 정리해서 방으로 옮겨가야 하는 과제가 남아있다. 시간이 지나면 더 귀찮아 질 것 같아서 강의 노트가 들어갈 자리를 시간당 2달러 방정리를 시작했다. 우선 책상 옆 구석에 잔뜩 쌓아 놓은 자료들과 책들부터 치우기로 했다. 제일 위에 자리한 큰 박스를 열어보니 삼십 년도 더 지난 남편의 일기가 나왔다. 암이라는 판정을 받은 후에 쓴 하나님을 향한 간구와 애원, 탄식 그리고 믿음의 고백이 구구절절 담겨 있었다. 또한 남편이 아플 때 많은 분들이 보내 준 격려의 편지와 카드, 장례식과 그 이후 보낸 조문 카드들도 가득했다. 수 많은 분들의 위로와 격려의 글들이었다. 안타까운 상황에서 그 분들이 전하고자 했던 한결 같은 메시지는 '힘내세요.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였다. 오랜 세월이 흐른 일이 갑자기 옛것처럼 일 같아 다가와 가슴이 아팠다. 그러나 그 암담했던 시간을 헤쳐 나갔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져 아침 내내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찬송이 나왔다.

그 다음 박스에는 81년 미국에 온 후로 받은 편지와 카드 중에 소중한 것들이 들어 있었다. 아무도 아는 사람 없는 미국 시골 교회로 이민 목회 초창기를 받아 왔을 때 내 나이는 24살이었다. 어린 나이에 듣는 사모님이라는 호칭도 힘들었지만 부모, 형제, 고국을 향한 그리움을 참는 것이 더 어려웠다. 남편은 교회 일로 정신없이 바빴고 첫 아기의 출산을 몇 달 앞둔 나는 일상을 나눌 친구 하나 없는 외로운 시간을 보냈다. 혹시라도 한국에서 편지가 올까 싶어서 매일 우체부가 오는 시간을 기다렸다. 그 당시 유일한 마음의 위안이었던 한국에서 온 언니들, 부모님, 친구들의 편지들을 하나씩 꺼내 읽으니 사십 년 전 외로웠던 초기 미국생활이 생생하게 느껴졌다. 생각해 보니 그때에도 하나님은 곁에 계시는 듯이 많은 국제 결혼한 분들을 붙여 주셨다. 산후 조리하라고 큰 들뜸 하나 가득 미역국을 끓여 주었던 분은 아직도 연락을 하고 지낸다. 남편이 떠난 후 생활이 벅찼을 때 매 달 물질적인 후원을 하던 옛 교회 권사님의 격려의 편지, 우리 교회 성도도 아니었는데 아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 점심값을 하라고 꾸준히 도와 주신 권사님이 수표와 함께 일상의 안부를 적어 보내주시던 편지들, 한국에서 조카들이 보낸 예쁜 글이 적힌 카드들, 학생들이 전해 준 감사카드들, 옛 친구들의 마음 담긴 편지들... 이제는 세상을 떠난 친구가 준 생일 축하 편지에는 그 친구 특유의 재치와 유머가 넘쳐서 마치 그 친구가 나에게 말을 거는 것 같았다. 박스 한 가득 찬 편지와 카드들을 읽다 보니 정리도 못한 채 한 나절이 다 지나 갔다. 버리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특별한 기억이 담긴 편지들은 차마 버릴 수가 없어서 다시 보관용 박스에 넣었다.

우리는 편지가 이메일로 대체되고 이메일도 길에서 이제 웬만한 대화는 텍스트 메시지로 카톡으로 전달이 되는 세대를 살고 있다. 이런 때에 몇 십년 전 편지들을 다시 꺼내 읽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삶 같다. 그러나 그 편지들은 나에게 바쁘다는 명목아래 잊고 살던 사랑과 우정, 그리고 격려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글로 표현된 그 마음들이 지금의 나를 가능하게 한 것은 아니었을까? 때로는 힘들고 지쳐 마음이 무너질 때 곁에서 용기를 주던 작은 글들은 나에게 큰 버팀대가 되어 주었던 것 같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잘 할 수 있다고, 그리고 밝은 앞날이 찾아올 것이라고 응원을 보내 준 마음의 글들이었다. 이제 교수직을 내려 놓았으니 이전 보다는 시간이 더 많을 것이다. 조금 더 여유로워질 시간을 마음속 담은 편지나 카드를 쓰는데 사용하면 어떻까 생각해 본다. 나의 마음을 담은 글 하나라도 외로운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linda.pyun@itsla.edu

칼빈의 경건생활 (The Piety of John Calvin)

I. 칼빈이 생각했던 경건

5)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라는 논문을 통한 칼빈의 계속되는 순례 여정

(2) 바울에 대한 칼빈의 집중적인 연구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는 바울에 대한 칼빈의 집중적인 연구 결과가 반영되어 있다. 이 논문은 단순히 바울의 사상에만 열중한 논문이 아니다. 칼빈의 목표는 바울의 사역 방식을 교회에 끌어들이는 데 있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고 지도할 어떤 질서를 보여주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칼빈 자신이 이러한 의도를 밝히고 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거룩함, 즉 심령 깊은 곳의 거룩함을 이루라고 독자들에게 요구한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나아가는 성장과정(일생에 걸친)을 기술하기 시작한다. 여기에서 칼빈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이원론적인 개념의 생활관과 재세례의 가르침에서(울트 그르든) 추론해 낸 즉각적인 완전성의 획득이라는 개념 사이에서 의식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에 선다.

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이율배반적 성격에 대한 숙고에서부터 나와야 한다. 그러나 칼빈이 21세기의 전반부를 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하여 들려주는 이야기에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이 글 속에서 칼빈은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청지기 원리를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우리가 현재 처해 있는 생태학적 위기에 대해서도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최근에 이루어진 거대한 기술적 진보가 이룩되기도 이전, 우주탐험의 시대가 개막되기 훨씬 이전, 지나친 자원 착취가 행해지기 이전, 칼빈은 지구라는 행성이 소위 "폐쇄된 환경구조"임을 알고 있었다.

(5) 칼빈의 인간 창조 세계 이해 다음에 기록된 인용구 등을 통해 칼빈은 인간이 창조 세계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모세는 지구를 개발하라는 조건으로 인간에게 지구가 제공되었다고 덧붙인다. 여기에서, 땅은 현재의 상태로 인간에게 주어진 것이며 인간은 땅을 경작해야 한다고 덧붙인다. 이 같은 사실로부터 인간은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된 것이지, 무위와 나태 가운데 누워 있도록 창조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 이 노동은 참으로 즐거운 노동이며, 기쁨으로 충만한 노동이며, 그것은 온갖 격정과 싫증은커녕 즐거움으로 가득 찬 것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땅을 경작해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므로, 인간 자신의 성품에 따라 게으른 휴식을 저주하셨다. 그러므로 자신에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은 채, 그저 먹고 마시고 자는 일로 인생을 허비하는 것은 자연의 질서를 위배하는 일이다. 모세는 동산을 관리하는 책임이 아담에게 위탁되었다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에 맡겨주신 일들이 있다고 덧붙인다. 이 일은 땅을 잘 관리하면서, 검약하고 검소하게 선용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땅을 소유한 사람, 그리하여 그 땅에서 나는 열매를 매년 취하는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으로 땅이 망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그 땅을 자신이 물려받은 그대로의 모습으로, 또는 더 잘 경작된 모습으로 후손에게 넘겨주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 땅의 열매로 먹고 살되, 사치스럽게 그러나 낭비하거나 게으름으로 인해서 열매를 망치거나 버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도록 허락하신 선한 것들을 존중하는 마음을 품어, 하나님의 섭리를 더욱 충만히 이루어드리고 더욱더 부지런히 일해야 한다. 나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나의 소유물을 관리해야 할 하나님의 청지기라는 사실을 모두 다 깨닫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누구도 방탕하게 행동하지 않을 것임이 하나님께서 보존(선용)하라고 하신 것들을 남용함으로써 망쳐버리는(더럽히는) 일도 없을 것이다."

6) 그리스도인의 경건의 삶의 탐구에 도움을 줄 일반적 원리들

칼빈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진적으로 성장해가는 것이라고 믿었다. 위의 인용문을 볼 때, 칼빈 자신도 1564년에 숨을 거둘 때까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삶을 향하여 성장의 과정을 밟아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경건(pietas)과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에 대한 칼빈의 가르침을 멋대로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까지 살펴본 칼빈의 경험을 보면서, 또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우리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가르침에 상응하는 삶을 탐구하는 데 도움을 줄 몇 가지 일반적인 원리들을 얻을 수 있다.

(1) 한 사람이 어떤 시대를 살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중요한 경험을 했는지를 모르고서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대한 나름의 견해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제자도에 대한 어떤 특별한 기독교적 관점을 이해하려면 칼빈 자신의 시대와 그의 독특한 그리스도 체험에 근거해야 한다.

(2) 우리가 고전적인 신학자들의 가르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일상의 삶에 대해 가지고 있는 숨겨진 전제들을 파악해야 하며, 최소한이나마 그것들을 배제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가) 인간은 자기 충족적인 존재이며 과학적, 기술적으로 뛰어나다는 신화, (나) 하나님을 일상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로 취급하지 않고, 그림자와 같은 개념으로 파악하려는 자세, (다) 성경을 다른 책들과 똑같은 인간의 책으로 이해하려는 관점, (라) 사후의 내세의 삶을 부정하고 인간의 모든 관심과 역량을 현재의 삶에만 기울이는 태도, (마) 상품의 생산에 대한 강조와 인간을 소비하는 동물로 보는 인간관, (바) 인간을 육구의 총족을 기대하는 하나의 동물로 보는 관점 등이 전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배제해야만 한다.

(3) 칼빈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칼빈이 설정한 기본 전제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그 전제들이란 (가)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이며, (나) 우리에게 주어진 자연은 선용하고 누리도록 주어진 것이지만, 중용과 책임을 전제하며, (다) 하나님은 섭리에 따라 우리를 보호하시며, (라) 철학자들의 글과 성경 사이에는 심각한 차이가 있으며, (마) 내세는 현재 삶의 목표일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 소망을 준다는 것이며, (바) 모든 재물(선한 것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사)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재물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여부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yoonsuklee@hotmail.com

Worldwide Church Directory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listing various churches and their contact information across different regions like NY, NJ, and Hawaii.

목회서신



박성규 목사 (주님세운교회)

변화를 일으키는 참된 사랑

흥수 때 제일 힘든 것이 사실... 변화시키는 참된 사랑을 찾아보

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Love is understand 즉, 사랑은 아래로 내려서는 것입니다.

입장에 서서 보는 것입니다. 그때 이해가 되고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변동제일교회 유년주일 학교 전도사였던 시절에 어느 주일 오후에 교사들을 모아 놓고 회의를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분이 지난 주일 교사회회가 끝난 후 저녁 시간에 그 남학생의 집을 주소를 들고 찾아갔는데 그 남학생이 문밖에서 여동생과 함께 쭈그리고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사다가 불을 피우고 밥을 해 주었습니다.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의 손을 잡고 기도 해주니 아이가 소리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입니다. "선생님이 나를 이해해 주신다. 선생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걸 느끼는 순간 그 아이는 치유되었고 양갈이 순하게 변해 버린 것입니다.



미드웨스트 서머 콘서트 후 기념 촬영 했다

미드웨스트 대학, 국제문화예술 대학원 신설

"글로벌 무대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도울 것"

Midwest University(총장 Dr. James Song)는 2024년 가을부터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을 신설하여 MFA와 DFA 과정을 제공한다.

이번 국제문화예술대학원의 신설을 통해 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 것이며, 서울 용인시에 국제예술센터를 오픈할 예정이다.

미주한인교계 큰 지도자 이정근 목사 별세

세계한인기독교연맹회 창설 및 제1대 회장 역임

미주성결교회 총회장 등을 역임하며 미주한인교계 발전에 크게 헌신해 왔던 이정근 목사가 지난 9월 1일(주일) 별세했다.



고 이정근 목사

고 이정근 목사는 1941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서 1972년 유학차 도미했다. 남양강리교회에서 입교한 후 만리현성결교회 집사, 성결교회 청년전국연합회 부회장, 나성성결교회 장로, 코비나성결교회 개척하여 담임전도사, 미주 성결교단에서 목사 안수, 유니온 교회를 개척하여 1980년부터 2010년까지 시무했다.

동하는 등 신학교 교수, 저술가, 부흥회 인도자로 활동해 왔다. 고 이정근 목사는 서울대학교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울신학대학 수학, 미국 애즈베리신학대학원(기독교 교육 전공, 문학석사), 조지팩스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남침례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 풀러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을 졸업했다.



소망소사이어티가 아프리카 차드에 쌀 보내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소망소사이어티, 제5회 차드에 사랑의 쌀 보내기 캠페인 시작

소망소사이어티(이사장 유분자 장로)가 아프리카 차드에 쌀 보내기 캠페인을 시작했다. 지구촌 최빈국 중 한 곳인 차드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근이 발생해 최근 몇만명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다.

에 쌀을 보내고 있다. 올해는 다섯 번째로 오는 10월말까지 캠페인을 펼쳐 차드에 보낼 예정이다. 쌀 1포는 차드에서 25달러에 거래된다. LA에서는 갈비탕 한 그릇 가격에 불과하지만 현지에선 한 가정의 한 달 식량이다.

거짓말에 맞서 싸우자!

〈1면에서 계속〉 모든 것이 거짓말에 가려져 있고 모든 것이 거짓말의 지배를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가장 작은 방벽으로 저항해야 한다. 그들의 지배가 나를 통해 지속되지 않도록 하자! ... 사람들이 거짓말을 포기하면 거짓말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

근본적인 실재가 있는지, 아니면 실제 자체가 변화가 가능하고 개인적 선호도에 기반을 두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이 자리 잡고 있다. 예를 들어 성 정체성 문제를 생각해 보자. 생물학적 성을 무시하고 "성 정체성"이라는 정신적 구성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형이상학적 주관주의"라고 불리는 무언가를 지지하고 있다.

하나의 전략, 세 개의 전술 이 전략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세 가지 전술을 도입해야 한다. 1. 내가 나의 실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짓말에 동참하지 말라. 오늘날 우리나라의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한 거의 모든 토론의 근저에는 모든 사람이 인정해야 할

기존 신념과 너무 완벽하게 일치하는 경우에 한 번 더 검증하라. 부정확한 정보를 공유했을 때 그 사실을 기꺼이 인정하고 수정하라. 영향력 있는 범위 내에서 비판적 사고와 사실 확인을 장려하라. 나의 정치적 견해와 일치한다는 이유만으로 잠재적으로 거짓된 정보를 공유하려는 유혹에 저항하라. 3. 거짓말에 대해서 선별적인 면제를 허용하지 말라

감정적 비진리도 예외가 아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내심, 친절, 은유함으로 의견 불일치에 대처해야 한다(갈 5:22-23). 우리는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의 믿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진정한 감정적 경험을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우리는 단지 통계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누군가의 두려움이나 우려를 단순히 무시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고 심지어 부정확하다고 여겨질 수도 있다는 사실도 기꺼이 인정할 수 있다.

비진리 서사에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 거의 모든 거짓 서사 뒤에는 어떤 집단이 우리가 진실을 알지 못하도록 음모를 꾸민다는 주장이 있다. 다시 말해, 비진리 서사는 그 자체로 다른 거짓말에 대한 하나의 반론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우리는 종종 거짓 비난이 용납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변명한다. 거짓 서사를 믿는 사람들은 그들이 비난하는 집단보다 힘이 약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아홉 번째 계명은 "적"이 누구인지 모르고 또 아무리 강력 하더라도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을 금지한다(출 20:16). 집단 비진리에도 예외가 없다. 이러한 유형의 허위가 드러내는 가장 흔한 형태는 성경적 행동 기준이 세속적인 정치 영역에서 비현실적이거나 실현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성경은 실제 정치 현장이나 소셜 미디어에서 정치에 참여하기 위해 공공 광장에 들어가는 신자들에게 윤리적 허점이나 도덕적 문제를 제시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세속 권력의 지위에 출마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허용하신다는 구절이 없다. 정치, 성실, 윤리적 행동에 대한 부담은 사회나 정부에서 맡은 어떤 역할과 관계없이 변함없이 유지되어야 한다. 거짓말하는 정치인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하며, 우리도 미워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정치인의 과제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예외가 되지 위한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복잡하고 종종 도덕적으로 모호한 정치 세계에서 정

직함을 본보기로 보여주는 것이다. 기관 관련 비진리에도 예외가 없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소중히 여기거나 내가 속한 제도를 위해 거짓을 간과하거나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인식해야 한다. 교회, 사역 또는 신앙 기반 단체 등 조직 내에 존재하는 복잡한 충성심과 압력을 우리는 기꺼이 인정한다. 또한 잘못된 행위를 폭로하면 기관의 사명이나 평판이 손상될 수 있다는 두려움도 이해한다. 그러나 결코 해서는 안 되는 일

이 있다. 결코 정직함에 대한 헌신보다 제도적 보존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우리는 더 높은 기준, 즉 기관의 자기 보호보다 투명성과 책임을 중시하는 기준에 부름받은 존재이다. 단순히 내가 속한 조직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이유만으로 오픈나 선택적 보고에 가담할 수 없다. 또한 기관을 향한 충성심이 하나님과 그의 진리에 대한 충성을 대체하는 우상 숭배의 한 형태가 되도록 허용할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기관의 명성보다 정직성을 중시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한다.

번역자가 되지 말라

성경 전체에 걸친 일관된 메시지는 하나님의 윤리적 기준이 모든 상황에서 또 모든 신자에게 적용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공공 장소에서 소금과 빛이 되도록 부름 받았으며(마 5:13-16), 기독교 윤리에 대한 확고한 헌신을 유지하면서 다른 신념을 가진 사람들과도 얼마든지 교류할 수 있음을 보여줘야 한다. 비그리스도인이 거짓 그리스도인을 거짓말쟁이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 결론 우리를 향해 맹세를 어기는 사기꾼이라고 말할 수 없어야 한다.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기본 기준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거짓말쟁이라면, 그건 우리가 반역자라는 의미이다. 거짓말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아닌 사탄 편을 드는 것이다. 그러나 거짓이 아닌 진실을 선택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거짓의 아버지에게 저항한다. 속임수에 가담하기를 거부할 때, 우리는 사회를 괴롭히는 거짓의 거점을 깎아내린다. "거짓말로 살지 말라"는 솔제니친의 도전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은 그리스도가 주는 사랑의 현실과 진리의 힘을 반영한다. 예수님의 길을 따르면서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 속임수에 빠진 세상에 소망을 제공해야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자유롭게 하는 진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그 진리에 굳건히 설 수 있는 능력까지 발전한다. 탈 진리 시대에 빛을 전하는 자로서, 우리의 궁극적인 충성은 집단, 서사, 감정 또는 어떤 기관이 아니라 진리 그 자체임을 항상 기억하자. 기꺼이 거짓말과 벌이는 전면전에 참여하자. 그리고 사탄의 전술을 사용하여 이기기보다는(단기적으로는) 지더라도 예수님 편에서 서서 거짓과 싸우자. by Joe Carter, TGC

동부교계 게시판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GRS신학교, TH.M 개강
 동부개혁장로회신학교(학장 김성국 목사)와 GRS 신학교(Dr. Allen D. Curry)는 성경적 상담학 Th.M 과정의 학점교류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으며, 2024년 가을학기에 황규명 박사(D.Min 웨스트민스터신학교(상담학))와 김준수 박사(D.Min 웨스트민스터신학교(상담학))를 초청하여 성경적 상담학 강의를 개강한다. 원서접수 마감은 9월 14일(토)까지이다.

▲ 문의: 718-463-7163

카야 기도회, 미주지역 영적부흥과 회복

카야기도회는 미주지역의 영적 부흥과 회복을 꿈꾸며 7일간(9월 9일(월)부터 15일(주일)까지) 매일 오후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연합하여 필그림선교교회(양춘길 목사 시무)에서 열린다. 7일 동안 말씀 전할 강사는 양춘길 목사, 함춘환 선교사, 최영환 대표, 김바나바 목사, 이은상 선교사, 스티븐 오 감독, 임현수 목사다. 또한 EVERYDAY WORSHIP, 뉴욕인투교회 IN2 WORSHIP, GCC은혜채플찬양팀, 에바다찬양팀, 뉴저지은누리찬양팀(스톤게이트), 뉴저지은유찬양팀, PMC EM 찬양팀 등이 찬양을 인도할 예정이다.

▲ 문의: 201-461-1225

뉴욕장로교회, 설립 54주년 감사 기념 말씀 사경회
 뉴욕장로교회(담임 김학진 목사)는 “교회여, 네 담장을 넘어라!”라는 주제로 권준 목사(시애틀 형제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설립 54주년 기념 말씀 사경회를 갖는다. 9월 13일(금) 저녁 8시 “오직 사망으로!”, 9월 14일(토) 새벽 6시 “오직 사랑으로!”, 저녁 7시30분 “오직 본질로!”, 9월 15일(주일) 오전 10시(연합예배) “오직 성령으로!”로 진행된다.

▲ 문의: 718-706-0100

제 7회 이민자보호교회 심포지엄

이민자보호교회(사무총장 김원재 목사)는 ‘난민문제의 오해와 진실’(마 25:35)이라는 주제로 존넬슨 목사(트레스 리오스 국경재단)와 지용주 목사(시라큐스한인교회)를 강사로 초청하여 9월 12일(목) 저녁 6시에 한울림교회에서 제 7회 이민자보호교회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 문의: 718-309-6980

뉴저지 새로운교회, 한국학교 개강

뉴저지 새로운교회(담임 김도완 목사)는 다음세대를 믿음의 자녀로 키우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한국학교를 9월 8일(주일)부터 12월 8일(주일)까지 12주동안 오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본교회에서 (Leonia High School - 650 Willow Tree Rd, Leonia, NJ 07605) 개최한다. 온라인등록은 <https://forms.gle/HvaCsmNdBUioCsPp8> 로 하면 된다.

▲ 문의: 디렉터 양미래 201-315-8424

뉴욕교협, 임시총회

대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회장 박태규 목사)는 9월 19일(목) 오전 10시30분 뉴욕교협 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한다.

▲ 문의: 718-279-1414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 38회 정기총회

뉴저지한인교회협의회(회장 김동권 목사)는 38회 정기총회를 9월 23일(월) 오후 6시 한무리교회(박상돈 목사 시무)에서 개최한다.

▲ 문의: 이준규 목사 총무 917-348-4456

러브뉴저지 청년연합 수련회 “Together”

뉴저지 6개 교회에서 총 40명의 청년 참가

청년연합 수련회가 “Together”라는 주제로 8월 23일(금)부터 26일(주일)까지 포코노 Mesmerizing Center에서 열렸다. 수련회는 목회자들이 연합하여 영혼구원에 힘쓰는 러브 뉴저지(Love NJ)가 주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젊은 청년들이 서로의 신앙과 가치관을 함께 나누고, 어두워져 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총 6개 교회에서 40명의 청년들이 함께 했다. 참석교회는 All Nations Church, Way Maker Church, 만민교회, 유영교회, 필그림선교교회, 하베스트교회 등이다.

주강사로 김성한 목사

(Gospel Mission Church)가 “복음 중심적 목상”이라는 주제로 섬겼다. 선택강의는 임성은 목사가 “Young Adult Christian and Money”, 안현일 목사가 “크리스천의 연애수칙”, 김지명 목사가 “일과 영성”, 정인식 목사가 “앗! 성경이 보이네~” 라는 주제로 청년들과 세마나를 통한 진솔한 나눔의 시간을 가졌다.

작지만, 강하고 건강한 연합 모임이 되기를 기대하는 가운데, 수련회에 참석한 청년들도 이러한 연합수련회가 앞으로도 지속되길 소망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뉴욕수정교회에서 2024 선교축제 연합예배를 드리고 있다

뉴욕수정교회 2024 선교축제 연합예배

“도구로 사용해주신 주님께 감사”

뉴욕수정교회(담임 황영송 목사)는 8월 18일 주일 드려진 선교축제 연합예배를 통해 올해 진행된 선교사역 소식과 감사를 나누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가졌다. 수정교회는 매년 한어권, 영어권, 중국어권의 모든 성도들이 연합으로 선교축제를 드려왔다. 연합 찬양팀의 찬양으로 시작된 선교축제 연합예배는 김동성 부목사의 기도 후 지난 7월 에 다녀온 오하이오주 데이튼 난민선교팀의 영상 보고와 간증 등으로 진행되었다.

데이튼 난민선교팀의 선교보고 영상 상영 후에 데이튼 난민선교단체인 No Longer Strangers NLS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조광호 장로의 간증이 이어졌다. 조 장로는 직장에서 은퇴한 후에 아내 조명희 권사와 함께 데이튼 난민선교를 2년째 자비량으로 돕고 있다. 조 장로는 NLS를 섬기게 된 과정과 현재 NLS에서 난민들을 섬기고 있는 침술사역, 행정 서류 작성을 도와주는 사역 등을 소개했다. 은퇴 후에 오늘은 무엇을 해야 하는 가라는 고민 대신 이렇게 보람된 일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주시는 것에 대한 감사를 고백했다. 특히 이날 예배는 지금은 은퇴했지만 네 팔 선교사로 섬겼던 Orlo Ellison 씨가 함께 참석하여 네 팔 선교에 대해 소개하는 시간

을 가졌다. 이어서 최하은 자매의 간증이 이어졌다. 최하은 자매는 이번 여름에 대학교 선교단체를 통해 네팔 선교를 다녀왔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복음이 온전히 전해졌는지, 단지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추가했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었지만, 불안과 좌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배웠다고 고백했다.

이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한 황영송 목사는 “2천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적이 없었지만, 전 세계를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 땅에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셨으며,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을 전했다. 뉴욕장로연합회 다민족선교대회 강사인 황영송 목사는 “주님의 세계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 큰 가슴을 가진 교회, 살아있는 예배가 있는 교회, 희생할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렇게 함으로 수정교회가 안다 교화와 같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으며,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로 칭찬받기를 소망한다”는 말씀을 전하고 이를 위해 함께 기도했다.

(정리: 김재상 기자)



수련회 참가 청년들이 사진촬영을 했다

한국기독교인재단, 사진콘테스트 개최

주제 “나의 십자가”

한국 기독교인들을 위한 데이팅 사이트인 한국 기독교인 재단(대표 이희상 장로)은 신앙 안에서의 만남과 교류를 돕는 무료 비영리 단체이다. 회원들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를 계획 중인 가운데, 첫 번째 이벤트로 사진 콘테스트를 개최한다. 이번 콘테스트는 “나의 십자가”를 주제로 진행되며, 1등 상금은 2,000달러, 2등 500달러, 3등 200달러가 수여될 예정이다. 등록비는 10달러이며, 사진 제출 마감일은 9월 30일이다.

한국 기독교인 재단은 이번 사진 콘테스트를 시작으로, 다양한 신앙 중심의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이벤



트로 찬양 축제를 준비 중이다.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 www.CKsingles.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현숙 기자)

피종진 목사 9월 2024년 국내외부흥성회



- 총신대학교 제56회 동문회 회장
 - 연세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이사
 - 한국 뉴욕주립대학교 영어연구회 동문회 회장
 - 미국 Philadelphia Faith 대학원 총장, Carl McIntire (D.Min)
 - 미국 Henderson Christian University 총장, Henderson Belk (Th.D)
- 010-5255-7777**
Godbless3377@gmail.com

- 1(주) 오전 논산육군훈련소 연무대 군인교회(군종 강우일 중령)
- 제 241차 해외성회 (241th Overseas Assembly)**
- 2(월)~3(화) 일본(JAPAN) 東京神學校 (Tokyo Theological Seminary) 학장 정스대반 목사, 대학원장 피종진 목사
- 4(수) 일본(JAPAN) 동경사랑의교회(정스대반 목사)
- 5(목) 일본(JAPAN) 동경 우에노공원 야외대중전도집회 동경 우에노 사랑의교회(김태실 목사)
- 6(금) 오전 강남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주회: 월드비전부흥협의회(대표회장 허은혜 목사) 010-3028-1545
- 7(토) 오전 Blessing Association MT 서울국제예술선교회(김재영 목사) 010-6713-0388 천보산 임영술 목사
- 9(월) 저녁 대구 북구제일교회(이재우 목사) 010-6698-3071 주회: 그루터기선교회(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정재윤 목사)
- 10(화) 오전~후 청평 강남금식기도원(원장 최동민 목사, 교무부장 김진성 목사) 010-3790-2462
- 12(목) 오후 오산리회자실기기념금식기도원(원장 김원철 목사) 주회: 엘로힐선교단(대표회장 양유식 목사) 010-8839-8899
- 15(주) 저녁 서울 열린교회(김희준 목사) 010-8633-0190
- 16(월)~18(수) 포항 브니엘교회(박민정 목사) 010-3739-4442
- 19(목) 오전~후 서울 축복교회(김보배 목사) 010-2971-1479
- 20(금) 오후 국제학술원(이사장 강영준 목사) 010-9260-1091
- 23(월) 서울 강남임마누엘교회(노영애 목사) 010-2236-9182
- 24(화)~25(수) 충주 다메섹기도원(원장 이승우 목사) 010-9229-9859
- 26(목) 오전 아산 첫사랑회복센터(김안나 목사) 010-5301-8220
- 27(금) 저녁 인천 은혜교회(한명희 목사) 010-7370-9191
- 28(토) 오전 Miracle(미라클) 국제선교센터 (대표교문 피종진 목사, 총재 조예환 목사, 대표회장 김수아 목사) 010-9082-9030
- 30(월) 오전 인천 주사랑열방구국기도원(백사랑 목사) 010-2272-9119
- 30(월) 오후 송추 반석교회(고건능 목사) 010-2391-3004

대한예수교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40(개포동) Tel. 02)3411-9191 Fax. 02)401-7770

사람을 찾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이 끊겨 소식을 알 수 없는 아들을 찾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많이 위독합니다. 주위에 아시는 분들이 계시면 소식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국 이름 : 심 종철
 외국 이름 : Antonio 심
 나이 : 1975년 생

연락처: 작은 아버지 (213)905-3874 / (818)454-8332 Yongsok45@gmail.com

미주 크리스천신문 구독문의

◆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240
캐나다	\$130	남미	\$240
한국/동남아시아	\$240	아프리카	\$240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611 S. Catalina St, #305 L.A, CA 90005
 213)674-7982, 323)665-0009 lachpress@gmail.com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718)886-4400 nychpress@gmail.com

LA동부사랑의교회 가정세미나

“믿음은 빛과 소금, 세상에 드러나야”

LA동부사랑의교회(담임 우영화 목사) 가정세미나가 ‘거룩한 기억의 공간, 가정’이라는 주제로 8월25일(주일)에 열렸다. 이번 세미나는 이정현 목사(청암교회 담임, 개신대학교 객원교수)가 강사로 참여했다. 웨키나 찬양팀의 찬양인도로 25일 11시 40분에 시작된 3부 예배는 박선아 집사가 기도했으며, 이정현 목사(청암교회 담임)가 ‘믿음으로 승부하라(히 11:32-38)’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정현牧사는 “이민자로, 외국인으로 살아가기가 쉽지 않다. 낯선 땅에서 열심히 사는 이유는 자녀들이 잘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잘되고 있을 까?”라고 질문하며 “고등학교 졸업이 교회졸업이 된다. 교회를 다닌다면 세상과 동일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

무런 문제가 되지 않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 목사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녀들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하며 “그 첫째가 믿음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다. 신앙의 선조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둘째 믿음은 세우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다. 예배는 준비가 필요하다. 교회에 출석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빛과 소금이다. 세상에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게 되면 교회를 떠나게 되지 않는다. 결론은 믿음이 답이다. 교회가 가야 할 모습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세우는 것”이라 말했다. (박준호 기자)



크렌셔장로교회 창립2주년 감사예배에서 한현종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크렌셔장로교회 창립2주년 감사예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 나라 세우는 것”

크렌셔장로교회(담임 한현종 목사)가 지난 8월 25일(주일) 창립 2주년 감사예배와 명예장로 추대식을 가졌다.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한현종 목사 사회로 시작된 예배는 남형웅 장로가 기도했으며 성가대 찬양이 있었다. 이날 한현종 목사가 ‘겨자씨가 자라야 하는 이유(막 4:30-3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한현종 목사는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이며, 이것이 자라나면 큰 나무가 되고, 많은 새들이 와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구조로 되어있다”며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교회는 3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한 목사는 “하나님나라로 상징되는 교회는 작은 것에서 시작한다”고 말하며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 이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때 겨자씨같이 작고 연약한 제자들을 선택하셨다. 창립 2주년을 맞이하는 크렌셔장로 교회를 볼 때 겨자씨 같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겨자

씨의 모습으로 출발했고 성장하는 일만 남았다. 그래서 기대와 희망과 소망이 가득한 복된 교회다. 겨자씨는 길로 보기에 겨자씨 안에 새가 머무를 수 있는 가능성을 심어놓으셨다. 우리는 겨자씨의 모습을 가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영적인 DNA를 심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기대해야 한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에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것”이라 말했다. 이어 김준기·박정준 명예장로 추대식이 거행됐다. 명예장로 추대식은 명예장로 추대자 소개, 기도, 추대패 전달, 악수례 순으로 진행됐다. 이어 오순자 서리집사 임명식을 가졌으며 김미정 집사 특송이 있었다. 이날 예배는 정삼희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동부사랑의교회 가정세미나에서 이정현 청암교회 담임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있다



2024 사모 블레싱 나이트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있다

2024 사모 블레싱 나이트 성황리에 열려

“사모...교회 전체를 품은 위대한 어머니”

2024 사모 블레싱 나이트 행사가 9월1일(주일) 오후 5시 은혜한인교회(담임 한기홍 목사) 친교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심상은 목사), 오렌지카운티장로협의회(회장 배기호 장로), 오렌지카운티목사회(회장 이원석 목사), 오렌지카운티여성목사회(회장 김선옥 목사), 오렌지카운티전도회연합회(회장 신용 집사) 공동주최로 열린 사모블레싱나이트에서 심상은 목사는 “오늘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사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 한다”며 “사모님은 목회자와 결혼하면서 자동적으로 사모님이라는 공인 자격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되며 그때부터 사모라는 자리는 마음껏 수도 마음껏 웃을 수도, 마음껏 행복할 수도 없는 이상한 공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이 교회와 함께하며 축복하는 이유로 사모님은 혼자 남은 고독한 존재가 되어 감정의 출구가 막혀버릴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은 우리 여함과 같게 되어 사모님의 자기다움을 표현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시고 불멸과 계시며 사모님이 행복하면 가정도, 교회도, 성도들도 행복하게 된다. 사모님들은 교회 전체를 품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행복하시는 사모님들만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한다”고 당부했다.

한기홍 목사는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만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바로 목회자의 아내”라며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남편 목회자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가 되기 위해 헌신한 사모님들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한다”고 말했다. 은혜한인교회 찬양팀의 찬양인도와 이창남 목사(교협 수동주최로 열린 사모블레싱나이트에서 심상은 목사는 “오늘이 귀한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사모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축복 한다”며 “사모님은 목회자와 결혼하면서 자동적으로 사모님이라는 공인 자격을 부여받고 살아가게 되며 그때부터 사모라는 자리는 마음껏 수도 마음껏 웃을 수도, 마음껏 행복할 수도 없는 이상한 공적인 위치에 서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남편이 교회와 함께하며 축복하는 이유로 사모님은 혼자 남은 고독한 존재가 되어 감정의 출구가 막혀버릴 뿐만 아니라 목회자의 가정은 우리 여함과 같게 되어 사모님의 자기다움을 표현하거나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모님을 사랑하시고 불멸과 계시며 사모님이 행복하면 가정도, 교회도, 성도들도 행복하게 된다. 사모님들은 교회 전체를 품고 있는 위대한 어머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을 통해 마음껏 웃고, 마음껏 울고, 마음껏 행복하시는 사모님들만의 축복의 자리가 되시길 축복한다”고 당부했다.



ANC은누리교회 한여름 밤의 금요일립이 열렸다

ANC은누리교회 한여름 밤의 금요일립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ANC은누리교회(담임 김태형 목사)는 ‘한여름 밤의 금요일립’ 집회를 지난 8월23일(금) 오후 7시45분에 개최했다. 이날 집회는 심형진 목사(뉴저지은누리교회 찬양담당)와 스톤게이트 찬양팀이 찬양을 인도했다. 김태형 목사는 “오늘 모인 성도들이 가을에도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태형 목사 사회로 시작된 이날 집회에서 심형진 목사(스톤게이트 찬양팀)는 청중들과 함께 ‘임재’, ‘은혜로다’, ‘높으신 주’, ‘지금은 엘리야때처럼’, ‘온 세상 창조주’, ‘피난처 있으니’, ‘내가 어디 거할지라도’, ‘비 준 비하시니’ 등을 불렀다. 이날 심형진 목사는 시 147:1-12를 설교했다. 심 목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고마로운 일이다. 우리가 나의

어떠한 것이 아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를 찬송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마땅한 일을 행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어떠한 분으로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 것을 알 때 진정한 예배가 회복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하나님은 상한 자를 고치시는 분이시다. 우리 안에 상한 아픔들이 있다. 이민자로 사는 것은 아픔을 감내하고 사는 것이다.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 상한 심령을 가지고 예배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상함을 완벽하게 회복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선포한 외침이 공중에서 땅에 선포될 것을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집회는 김태형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주님의영광교회 고향선교대회

주님의영광교회(담임 신승훈 목사)는 탈북자 기독교 단체인 고향선교교회와 연합하여 고향선교대회를 10일(화)부터 13일(금)까지 오후 7시30분에 개최한다. “내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소서”(겔37:15-28)의 주제로 진행되는 고향선교대회의 강사는 이창교 목사(상남교회), 신승훈 목사(주님의영광교회), 이광훈 목사(창원중앙교회)이며 선교대회 기간 한에스더 전도사, 신한전도사, 이주는 목사, 주영순 목사가 간증을 한다. ▲ 문의: (213)749-4500

LA기쁨의교회 교회설립 기념 부흥회

LA기쁨의교회(담임 이희문 목사) 교회설립 기념 부흥회가 ‘좋은 음을 넘어 위대함으로’라는 주제로 6일(금)부터 9일(주일)까지 열린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장총렬 목사(투산영락교회 담임)이며 일정은 8일(금) 오후 7시30분, 9일(토) 오전 5시30분, 오후 7시, 8일(주일)은 설립 15주년 감사예배(오전 8시, 10시30분)로 드린다. ▲ 문의: (213)351-9975

새생명비전교회 창립 15주년 기념 전교인 전도 초청예배

새생명비전교회(담임 강준민 목사)는 창립 15주년 기념 전교인 전도 초청예배를 ‘해피선데이’라는 주제로 8일(주일) 오전 7시30분, 9시30분, 11시30분, 오후 2시에 갖는다. 이날 예배시간을 통해 김재원 장로(KBS아침마당 진행 아나운서)가 간증하는 시간을 갖는다. ▲ 문의: (323)373-0110

나성한미교회 김인식 목사 초청 찬양콘서트

나성한미교회(담임 홍충수 목사)는 야곱의 축복 김인식 목사 초청 찬양콘서트를 8일(주일) 오전 10시50분에 갖는다. ▲ 문의: (626)444-0058

타코마제일침례교회 가을부흥회

타코마제일침례교회(담임 송경원 목사) 가을 부흥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라는 주제로 6일(금)부터 8일(주일)까지 개최된다. 이번 부흥회의 강사는 정승룡 목사(리치몬드 침례교회)이며 일정은 6일(금) 오후 7시, 7일(토) 오전 6시, 오후 7시, 8일(주일) 주일예배시간이다. ▲ 문의: (253)535-9435

에피포도문학상 수상자 선정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분이심을 알아야”

에피포도예술과문학(백승철 대표)이 제정한 제28회 에피포도문학상 수상자 다섯 명이 선정되었다. 시문학상(본상)은 시애틀(Seattle)에 거주하는 이송희 시인의 ‘우주의 탄생’ 외 4편, 한국(서울)에서 이용자 시인의 ‘비상’ 외 4편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문학상 수필은 김명수(프리몬트 Fremont) 수필가의 ‘아버님의 진심’ 외 2편이 선정됐다. 시문학상 신인상은 정한나(세리토스 Cerritos)의 ‘도토리 행복’ 외 2편, 임지영(라구나 니구엘 Laguna Niguel)의 ‘경계’ 외 2편이 수상하게 됐다. 아동문학가로 활동하는 이송희(시애틀 Seattle) 시인은 경희대의동포문학상 수상, Famous Poets Free Poetry Contest 수상, 대한민국통일예술제 문학대상, 미주문인협회 이사, 한국디카시인협회 시애틀지부장, 시집으로 <나비, 낙타를 만나다> 동시집 <뽕 굵는 날> 외 다수가 있다. 이용자(한국 서울)시인은 한백문학동인회 부회장, 한국문인협회,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회원으로 활동하며 시집으로 <빛이시라 그분은> <사랑이시라 그분은> <소망이시라 그분은> 외 다수가 있다. 김명수(프리몬트 Fremont) 수필가는 이화여자 대학교, U.C. San Francisco 약학대학, 명우문학 회원, 버클리문학 신인상시 수상, International Poetry Contest 수상, Eber & Wein publishing에 Best Poet으로 선정, 한국일보 ‘여성의 창’필



제28회 에피포도문학상 수상자 왼쪽부터 이송희 시인 · 이용자 시인 · 김명수 수필가

진을 역임했으며 작품으로 장편소설 <앞새 위의 이슬> 수필 <꿈나무 속의 저녁노을> 외 다수가 있다. 신인문학상 수상자 정한나(세리토스 Cerritos) 시인은 남가주 광명교회 사모로 미주 크리스천대학 교수, 꿈방비전센터 대표(홍사모 사역), 하브루타(유대인 자녀교육) 세미나 강사이며 작품으로 <여섯도 안 많아요> 공저 <하브루타 네 질문이 뭐니> 연합시집(시집) <나아드리의 향유> <가무> <하프타 새 노래들> 외 다수가 있다. 임지영(라구나 니구엘 Laguna Niguel) 시인은 대구매호초등학교 교사 역임, JU Genesis Lab 공동대표이며 열마인 주교회 북클럽 팀장, 제9회 세계한인기독언론협회(회장 임승래) 주최 신앙도서 독후감 공모 수상자로 이번 수상을 계기로 시인의 길에 들어섰다. 아울러 이번에 수상한 작품집 출판기념과 시상식은 2025년 에피포도설립 30주년을 기념해서 뜻 깊게 진행될 예정이다. (기사제공:에피포도예술과 문학)

LA드림 오케스트라 ‘오페라 슈퍼스타’ 라는 주제 공연

LA드림 오케스트라(지휘 다니엘 석)는 8월 31일(토) 오후 7시 30분 지퍼홀에서 ‘오페라 슈퍼스타’라는 주제로 공연했다. 이날 공연은 테너 백석중과 소프라노 카라 손이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공연을 선보였다. 테너 백석중은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런던 로얄 오페라 등과 공연한 정상급 음악가다. 소프라노 카라 손은

LA Opera에서 나비부인으로 데뷔를 앞두고 있는 유망한 한인 소프라노 가수다. 이날 공연은 LA드림 오케스트라가 Giuseppe Verdi의 "Nabucco Overture", Gioacchino Rossini의 "William Tell Overture" 등을 연주했으며 테너 백석중이 Giacomo Puccini의 "Recondita Armonia" from "Tosca"와 "E Lucevan le Stelle"

from "Tosca", Eduardo di Capua의 "O Sole Mio" 등을 불렀으며 소프라노 카라 손이 Giacomo Puccini의 "Vissi d'Arte" from "Tosca"를 불렀다. 이날 공연은 테너 백석중과 소프라노 카라 손이 Giacomo Puccini의 "Pinkerton and Butterfly" from "Madama Butterfly"를 부른 뒤 마쳤다. (박준호 기자)



LA드림 오케스트라 공연이 마친후 출연자들이 청중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장신대, '제4회 한마음 기도의 밤' 개최

'Restoration 교회를 세우심' 주제로 열린 기도회

장로회신학대(장신대·총장 김운용 교수)가 지난 29일 서울 광진구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제4회 장신 한마음 기도의 밤'을 진행했다고 3일 밝혔다. 660여명이 함께한 이번 기도회는 'Restoration 교회를 세우심'이라는 주제로 열렸으며 찬양과 말씀 봉독, 설교, 기도회의 순서로 진행됐다.

양 및 워십으로 시작됐고 이후 김태섭 장신대 신약학 교수의 대표기도와 조창우 총학생회장의 성경 봉독이 있었다. 설교 시간에는 이상준 1516 목사가 '부흥(행 15:16)'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다. 이 목사는 "부흥은 정상적이고 합당한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과거 부흥의 시절이 아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부흥

임을 강조했다. 이후 이어진 기도회에서는 장신한마음기도연합회 서기 신이삭 전도사, 장신대 신학대학원 학우회장 김혜영 전도사, 장신한마음기도연합회 총무 정재은 전도사를 필두로 '자신을 위한 기도' '장신대를 위한 기도' '한국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한마음으로 뜨겁게 기도했다. 참가자들은 서로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손을 잡고 서로를 위해 낮은 시간까지 계속하여 기도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앞으로 나와 기도했고 무릎을 꿇고 손을 높이 들며 기도하는 이도 있었다.

한편 '제5회 장신 한마음 기도의 밤'은 다음달 31일 한경직기념예배당에서 열릴 예정이다. 올해 들어 벌써 네 차례인 '장신 한마음 기도의 밤'은 1학기 중 제1회 'Revival: 다시 십자가 앞에', 제2회 'Revival: 다시 성령으로', 제3회 'Revival: 다시 복음으로'의 주제로 열렸고, 2학기는 개강과 동시에 제4회를 진행했다.



'진짜같은 가짜' 딥페이크 범죄, 교계도 남일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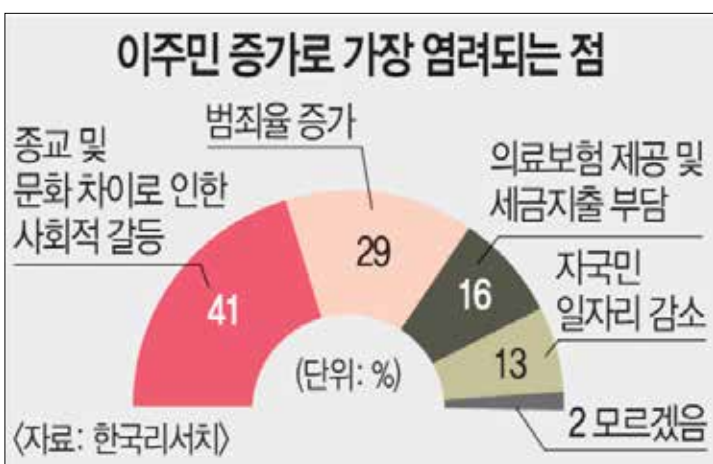
딥페이크 성범죄 바라보며

경기도 소재 한 교회 청년부를 출석하는 A씨는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이 터지자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다. 또 자신의 얼굴이 나온 사진도 삭제했다. 딥페이크는 인공지능(AI)으로 기존의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이미지나 영상을 진짜처럼 만들어 내는 기술을 의미한다.

성범죄와 관련해 엄격 대응에 나선 상황이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며 한국교회 역시 딥페이크 성범죄 사태에 적극 대응·예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교인들의 얼굴 및 행사 사진 등이 딥페이크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발생한 딥페이크 범죄는 10대 사이에서 주로 이뤄졌는데, 특히 '일상적인 공간'에서 마주치는 지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같은 사태에 원인은 무엇일까. 이수인 아신대 교육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는 딥페이크를 범죄가 아닌 일종의 '놀이'로 생각한다는 경향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청소년 등 저연령층은 다른 연령층에 비해 온라인 소통과 미디어 환경 등에 익숙하다"며 "

교회가 딥페이크와 관련해 적극 대응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이단·사이버 단체가 딥페이크 등 AI 기술을 통해 이단 교리 옹호에 악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이억주 목사)는 논평을 통해 "이런 첨단 산업과 문화는 무조건 긍정적인 것만을 주지는 않는다"면서 "가령 기독교 유명 목회자를 흉내 내어 이단의 교리나 잘못된 말을 전달을 하게 될 경우, 이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그대로 믿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홍순 다문화평화교육연구소장은 이주민 증가로 발생하는 종교·문화 갈등 의미를 살펴보면 설사가 말하고 있는 교회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박 소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이상 노예로 살았던 역사적 사실, 이주민·난민과 수평적 관계를 맺고 살았던 스토리가 담긴 에베소서를 사례로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문화와 전통 종교 관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불어 살았던 모습이 성서에서 말하는 신앙공동체"라며 "이들과 함께 살아가려는 노력이 기독교인의 진정한 본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재영 실천신학대학원대 종교사회학 교수는 "단일민족, 기독교인이라는 한정된 생각을 갖기보다는 이주민에 대한 배려에 관심을 뒤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는 "기독교인은 화해자의 사명을 갖고 있다"면서 "나그네를 대하는 태도로 이들에게 친절을 베푼다면 선교의 가능성까지 열어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위급한 생명 살린 굿피플 '모두의 한 끼' 봉사

광주 원룸 거주 일용직 노동자

50대 중반인 A씨는 광주 서구 상무동의 한 원룸에 살고 있다. 가족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됐고 모친은 치매로 고생하다가 현재는 병원에서 요양 중이다. 일용직 노동자였던 A씨는 언젠가부터 건강이 나빠지면서 일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이 지역 행정복지센터 관계자 B씨는 A씨의 원룸을 찾았다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꼈다고 한다. 각종 반찬이 든 봉지가 문고리에 그대로 걸려 있었던 것. 반찬은 국제구호개발 NGO인 굿피플(회장 김천수)과 상무1동주민자치회가 A씨에게 매주 전달하는 음식이었다.

B씨는 곧바로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 출동한 구급대원들과 함께 집에 들어갔다. A씨는 기진맥진한 상태로 쓰러져 있었다. B씨는 "반찬을 가지러 나갈 힘도 없을 정도로 A씨의 상태가 심각했다"며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당시 곧바로 병원으로 후송됐던 A씨는 현재 건강을 회복한 상태다. 한 사람의 목숨을 살린 반찬 봉지는 굿피플이 벌이는 '모두의 한 끼' 캠페인을 통해 배달된 것이었다. 굿피플은 이 캠페인을 통해 2020년부터 취약계층에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이 사업이 진행 중인 장소

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광양 구미 등 6개 지역이다. 광주에서 이 캠페인이 전개된 것은 지난해부터다.

상무1동자치회는 굿피플의 도움을 받아 동네에 있는 '원룸촌'을 중심으로 매주 1회씩 50가구에 반찬을 배달하고 있다. 무더운 날씨로 인한 식중독 우려 탓에 냉장 보관이 필요한 음식엔 '냉장보관' 스티커를 붙여 놓기도 한다. 장성우 상무1동 주민자치회장은 "매주 50가구에 반찬을 배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보람을 느끼며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며 "상무1동이 모범 사례가 돼서 더 많은 소외 이웃에게 따뜻한 음식이 제공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굿피플은 '모두의 한 끼' 캠페인을 꾸준히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A씨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 캠페인은 소외 계층에 식사를 제공하면서 1인 가구의 '고립'을 예방하는 성과도 내고 있다.

굿피플 관계자는 2일 "계속 반찬을 배달하기 위해서는 많은 이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광주에서 있었던 일처럼 이 캠페인을 통해 의미 있는 일들이 계속 생겨날 수 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주민 향한 수평적 시선이 사회적 갈등 예방"

"이주민 증가 탓 갈등 우려" 41%, 더불어 사는 노력이 기독교인 본분

제한 이주민 300만 시대를 맞이해야 하는 크리스천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이주민을 동등한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우선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이주민을 향한 수평적 시선이 곧 '교회다움'이라고도 조언했다. 이 같은 자세는 더불어 사는 이주민에게 제기되는 다양한 갈등을 예방하거나 해소하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최근 한국리서치가 실시한

이주민 정책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민 인구 증가로 가장 염려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응답자들은 '다양한 종교·문화 차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발생'(41%)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범죄율 증가(29%), 의료보험 제공 및 세금지출 부담(16%), 자국민 일자리 감소(13%) 등의 순이었다. 한마디로 종교에 따른 문화적 이질감을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다.



한교총, 한기총과의 '통합합의문' 임시 채택

대표회장·공동대표회장단에 세부 결정 등 위임하기로

한국교회 대표 연합기구 간 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다만 아직 남은 세부 합의와 절차가 많아 연내 실제 통합까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한국교회총연합(한교총·대표회장 장종현 목사)이 3일 서울 종로구 한교총 회의실에서 상임회장회의를 열고 자체 기관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오정호 목사)가 보고한 '연합기관 통합합의문(안)'을 임시 채택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의 통합 방식과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골자다.

이날 회의에서 임시 채택된 '연합기관 통합합의문(안)'에는 통합 기관의 명칭은 한기총으로 하고, 운영방식은 한교총의 정관과 각종 규정을 따른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 기관

대표회장으로는 오정호 새로나 교회 목사가 물망에 올랐다. 통합된 공동대표회장단 구성은 규정대로 하되, 한기총 측에서 추천한 1인을 포함한다는 내용과 안정적인 통합 유지를 위해 3년간 대표회장 선임을 위한 인선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교총은 지난달 22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연합기관 통합합의문(안)'을 한기총에 보냈고, 한기총은 오는 5일 긴급임원회의를 열어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답신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기총에 공이 넘어간 셈이다. 한교총 상임회장단은 일단 이날 '연합기관 통합합의문(안)'을 임시 채택한 뒤, 대표회장과 공동대표회장단에 이를 위임해서 세부 절차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한교총이 먼저 통합에 관한 합의문을 임시 채택하긴 했지만, 한기총뿐만 아니라 한교총 회원 교단별로 이단 규정, 통합의 세부 방식 등에 의견이 갈릴 것으로 보여 실제 통합결의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이달 중순 일제히 열리는 주요 교단 총회에서 이에 대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변수다. 또 한교총과 한기총 두 법인을 하나로 통합하며 거치게 될 법인해산 절차도 과제다.



복음으로 일터 밝히려는 55년... 직장인예배 소통·교제 역점

1969년 영락교회 성경공부 효시

'일터 속 복음의 통로' 직장인예배가 한국에서 시작된 지 55년이 됐다. 과중한 업무가 일상인 '피로사회' 한복판에서 직장인예배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쉼을 선사하는 휴식 같은 예배이기도 하다. 한국의 첫 직장인예배는 1969년 9월 5일 서울 영락교회(김운성 목사)에서 열린 '금요 직장인 성경공부'가

효시다. 당시 이 교회 부목사였던 박조준(90·국제독립교회연합회 설립자) 목사가 처음 제안한 모임이었다. 10명 남짓 출발한 성경공부 모임은 예배로 전환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영락교회 직장인예배는 오는 11월 1일 55주년 기념예배를 드린다. 직장인예배의 바통은 1978년

남대문교회가 이어받았다. 이후 종교교회(1980년) 서소문교회(1983년) 정동제일교회(1984년) 새문안교회(1985년) 등이 잇따라 직장인을 교회로 초청했다. 이들 교회 모두 기업체와 관공서, 사무실이 밀집해 있는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하고 있다.

박조준 목사는 3일 "미국에서 유학할 때 몇몇 교회들이 직장인을 초청해 '금요 정오 기도 모임'을 갖는 걸 보고 한국에 들어가면 꼭 해보고 싶었다"면서 "귀국해서 직장인들을 보니 업무에 지치고 스트레스는 풀 데가 없고 영적 쉼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미국에서 경험한 대로 잠시라도 쉼 안에서 쉬게 하고 싶어 직장인 성경공부를 시작했다고 당시를 회상했다. 박 목사는 "교회 바로 앞에 쌍용그룹 본사가 있었고 이밖에도 크고 작은 기업이 많아 초창기부터 폐업자가 많았다"면서 "무엇보다 직장인들이 교회 마당을 걸으면 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는 모습

이 너무 감사했다. 초창기 이 모임에 왔다가 결혼한 이들도 있고 목사가 된 예도 있다"고도 했다. 반세기를 훌쩍 넘은 직장인예배의 역사는 헌신의 역사이기도 하다.

이의용 교회문화연구소장은 쌍용그룹에 근무하던 1981년 영락교회 직장인예배 찬양팀을 꾸린 뒤 지금까지 지휘자로 봉사하고 있다. 지금은 직장인예배를 준비하는 교회들을 위한 컨설팅도 하며 일터 복음화에 힘쓰고 있다. 이 소장은 "직장인예배가 빛나는 건 지친 직장인들에게 영적인 위로와 격려를 전할 수 있기 때문"이라면서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점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큰 매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선교의 블루오션인 직장인예배는 참석자들과 소통의 폭을 넓히고 예배와 함께 교제에도 역점을 두면서 예배 공동체로 키운다면 주중 교회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고 밝혔다.

교회선교의 선순환 (virtuous cycle) (62)

조용중 선교사
(KWMC 사무총장, Ph.D)



올림픽, Expo 그리고 선교대회

2024년 파리올림픽은 많은 충격을 주었다. 개막식의 반기독교적인 내용들이 거리낌 없이 등장하고 큰 동요 없이 지나갔다는 것도 충격이었다. 개막식을 처음부터 자세히 보지 못했으나 일반 올림픽의 개막식과 다르게 상당히 창의적인 시도가 보이는 것이 “파리스럽다”는 느낌을 받았다. 후에 논란이 되었던 내용들을 다시 살펴보면 때에 반기독교적인 메시지가 거침없이 유럽과 세계를 강타하고 있음에 하나님의 진노가 가까울 것이라는 생각으로 두려웠다. 올림픽은 매 4년마다 국가를 대표하여 각 분야의 스포츠인들이 경합을 벌이고, 그동안의 갈고 닦은 기량을 뽐내며 국위를 선양하기도 하고 세계적 화평을 도모하는 2주간에 열리는 세계적 잔치이다. 대부분 그동안 알려진 선수들이 메달을 받는 단상에 오르며 되지만 기대하지 않았던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기대 이상의 메달을 달게 되는 선수들을 보는 것도 많은 이들에게 큰 기쁨이 된다. 한국 선수들이 예상 금메달 숫자보다 훨씬 많은 메달을 받게 되었을 때에 그 기쁨이 컸다. 올림픽은 준비한 선수들이 서로 겨루고 승패를 확실하게 보는 장이다. 그런데 승패를 겨루는 올림픽과 다르게 세계박람회 Expo는 국제박람회기구에서 주관하여 매 5년마다 열리면서 세계 각국의 문화, 기술, 산업 등 그동안 개발된 것들을 전시하고 교류하여 교육적이고 문화적인 교류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그 기간이 3개월이나 6개월씩 지속적으로 열린다. 전시와 발표,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주요 활동이다. 참가국들은 각국의 최신 기술, 문화, 예술 등을 소개하는 전시관을 운영

한다. 참가국 간의 기술과 문화 교류, 경제적 효과, 도시 재개발, 관광 수익 등이 주요 영향이다. 박람회 이후에도 전시된 기술과 정보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런 국제적인 모임들처럼 올림픽이 열리는 해에 한인세계선교대회 가 매 4년마다 선교올림픽과 같이 모두가 모이는 기회로, 박람회와 같은 교류와 확산을 위한 목적으로 개최되었으나 이제는 확실히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것이다.

시대에 적합한 선교전략을 개발하기 위해 선교대회가 전문영역트랙 중심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시작은 2022년에 개최된 제9차 대회부터였다. 모든 환경이 변했다. 대회 장소를 지역교회로 옮기게 되었다. 팬데믹 시기에 학교를 빌리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렇지만 교회의 시설은 학교와는 현저하게 차이가 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한정된 장소를 트랙별로 배정하여야 하는 제한이 있다. 우선 가장 시대에 필요한 영역을 정하고 제한해야 했다. 국가와 권역 별 모임을 포기하고, 영역으로 한정하였다.

제1차 대회부터 제7차 대회까지는 휘튼대학의 빌리그래함 센터에서 모였고 2016년에 서부의 아주사대학에서 열린 제8차 대회까지는 3,000명 이상이 대학 캠퍼스에서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선교에 관여하고 있는 거의 모두에게 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했다. 4년마다 열리는 선교 박람회, 선교올림픽이라고 생각하고 각 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 그리고 선교관심국가, 지역, 종교별 사역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선교관심자와 교회들이 모두가 함께 모이는 장이 되었다. 우열을 가리고 경쟁하는 올림픽과는 다른

모임이다. 이런 면에서는 오히려 박람회의 성격이 더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박람회의 성격은 넓은 것은 42개의 단체가 전시부스를 설치하고 참가자들에게 알려져 홍보와 네트워킹을 만들어갔다 것이다. 그러나 주요 참가자들은 선교사들과 교회성도들의 또다른 기대는 올림픽이나 박람회와 전혀 다른 영적인 도전과 비전의 공유가 중요한 목표가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전문영역별 트랙을 위한 시간과 모두가 함께 모여 진행되는 아침 영성 집회, 주제강의, 성경 강해, 저녁집회가 함께 준비된 것이다.

2016년도에 개최된 제8차 대회까지 대부분의 분반 모임은 한 사람이 한 시간의 강의를 맡아서 진행하는 방식이었다. 참석자들은 이런 강사들의 이름과 관심지역을 찾아서 매시간 강의실을 찾아다니는 것이 즐거움이었다. 그러다가 조금 지친 사람들은 삼삼오오 만나서 캠퍼스에서 교제의 시간들을 가졌다. 잘 알려진 유명 강사들의 나오는 강의는 빈자리가 없게 큰 강의실을 채웠으나, 어떤 강의실에는 강사 혼자서 폐강을 선언하는 일도 일어났다.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평가들이 오래전부터 나오기 시작했다. 마침 팬데믹은 모든 것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된 것이다. 영역별 모임은 이들 동안 8시간에 걸쳐 모든 전문가와 관심자들이 함께 모여 진행을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논의가 가능한 것이다.

제 10차대회의 장소가 남가주사랑의교회로 결정될 때에 첫번째 고려하는 부분이 각 전문영역트랙을 운영할 장소가 충분할 것인가였다. 처음에는 교회 시설 담당자들도 선교대회는 분당에서만 모임을 가지

는 부흥집회 같은 것으로 생각해서 20개의 분반 모임을 위한 장소가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할 정도였다. 대회 준비 담당자들이 교회를 몇 번 방문하고 장소를 확인하였다. 9차 대회에서는 13개의 트랙으로 나뉘어졌으나 10차 대회는 전문영역이 20개로 증가되었다. 그동안 전문영역의 세분화와 확대영역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논의하여 전문영역트랙을 운영할 수 있는 20개의 교실을 확보하였다. 최소한 30명 이상이 들어가는 20개 이상의 방들이 준비되어야 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었다. 분당이 있는 미라클컴플렉스와 교육관과 영어컨에베가 모이는 킴드림센터였다. 이들 사이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다. 교회는 매주일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주차장과 교육관을 오가며 사역을 한다. 이렇게 나뉘어진 캠퍼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였다. 대회 기간동안 주차장에서 매끼 식사를 준비해주신 봉사자들, 인터넷과 미디어가 모든 장소에서 잘 운용되도록 오랫동안 준비한 미디어와 기술팀, 안내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섬겨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선교대회를 은혜롭고 감동적인 대회로 마치게 하였다. 이제 그 열매가 모든 교회와 개인들의 삶과 사역에 열매로 맺어져야 할 시간들이다.

전문영역 트랙으로 나누게 된 두번째 이유는 무엇보다 변화하는 시대에 걸맞는 선교전략의 개발이었다. 선교의 본질은 변하지 않지만, 대상인 세상은 늘 변한다.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을 향한 창의적 선교전략을 제시해야 할 책임감을 가지고 선교대회가 구심점이 되기로 한 것이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선교전략은 무엇인가의 답을 하나로 제시할 수 없었지만, 다양한 영역에서 노력하고 있는 이들을 발굴하고 그 영역의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마음을 열고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겠다는 결정을 하고 전문영역 트랙으로 발전을 시킨 것이다. 대회가 열리기 일년 전부터 각 영역의 전문가들을 발굴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 영역 트랙을 준비할 코디네이터를 임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코디네이터는 어떤 물질적인 보상

도 받지 않으면서 다른 전문가들을 한자리에 한기간에 모아야 한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있지만 그들을 설득하고 대회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였음에도 각 영역의 코디네이터들은 최선을 다해서로 나뉘어졌으나 10차 대회는 전문영역이 20개로 증가되었다. 그동안 전문영역의 세분화와 확대영역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몇 차례 논의하여 전문영역트랙을 운영할 수 있는 20개의 교실을 확보하였다. 최소한 30명 이상이 들어가는 20개 이상의 방들이 준비되어야 했다. 남가주사랑의교회는 두 개의 캠퍼스로 나뉘어져 있었다. 분당이 있는 미라클컴플렉스와 교육관과 영어컨에베가 모이는 킴드림센터였다. 이들 사이는 자동차로 5분 거리에 자리한다. 교회는 매주일 셔틀버스를 운영하여 주차장과 교육관을 오가며 사역을 한다. 이렇게 나뉘어진 캠퍼스를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혜가 필요하였다. 대회 기간동안 주차장에서 매끼 식사를 준비해주신 봉사자들, 인터넷과 미디어가 모든 장소에서 잘 운용되도록 오랫동안 준비한 미디어와 기술팀, 안내와 셔틀버스를 운영하며 섬겨 주신 모든 분들의 수고가 선교대회를 은혜롭고 감동적인 대회로 마치게 하였다. 이제 그 열매가 모든 교회와 개인들의 삶과 사역에 열매로 맺어져야 할 시간들이다.

세번째 이유는 선교대회 효과의 지속성을 위해서였다. 선교대회는 대부분 큰 감동과 도전의 시간이다. 많은 것을 배우기도 하고, 도전을 받아 대회장을 떠나면 4년동안 자유로운 시간들이 된다. 그 이후 어떤 일들이 진행되는가에 대해서 KWMC가 책임을 질 수는 없다. 참가자 개인들이 알아서 길을 묻고, 찾아가야 한다. 거기에 대한 아쉬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문영역의 트랙을 발전시키게 된 것이다. 이제 각 영역에서 만난 전문가들과 관심자들이 지속적인 발전을 모색하게 될 것이며, KWMC는 그들을 격려하는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미국에는 IVF가 주관하는 유명한 어머니대회가 있다. 1946년에 시작하여 일리노이대학교 어바나 샴페인 캠퍼스에서 2003년까지 매 3년마다 모임을 가졌기 때문에 어머니대회라고 잘 알려진 대회이다. 크리 스타스가 끝나고 연말을 함께 모여서 영성을 새롭게하고 세계선교의 도전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는 미국 캠퍼스복음주의 운동의 가장 중요한 대회이다. 이런 대회를 통하여 수많은 선교 헌신자들이 나왔지만 막상 선교지로 나간 사람들의 숫자는 5%가 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고 그 대책을 제시한 것이 랄프 윈터박사가 개발한 퍼스펙티브라는 선교훈련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미국교회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교회에 선교훈련의 큰 역할을 감당하게 하였다. 이처럼 대회의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도록 KWMC는 대회 이후의 지속적인 운동이 되도록 각 영역별 네트워킹을 통해 일할 것이다.

지역 교회 중심의 선교운동 활성화를 위해서도 교회로 변경하는 것을 택했다. 더 중요한 것은 늘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서 함께 모였을 때에 느낄 수 있는 영적준비성이 비교할 수 없는 장점이라는 것이다. 9차 대회의 와싱턴중앙장로교회가 그랬고 이번 10차 대회의 남가주사랑의교회가 확인을 하여 주었다. 늘 기도드리고 예배드린 장소, 미주한인교회의 대표적인 교회에 모인 선교 동역자들의 기도는 잘 마른 나무에 물을 지피는 것과 같았다. 성령의 역사는 준비된 심령 가운데 준비된 시기에 일어나는 것이다.

올림픽의 열기가 끝나면 모든 선수들은 4년후를 대비하며 또 하나의 메달을 향해 강호에 들어간다. Expo가 끝나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힌 것을 삶의 현장에 적용시키며 5년 후에 발전된 자신의 모습을 꾸며며 땀을 흘린다. 그들은 더 알찬 내용의 맛있는 발표를 자기도 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준비하며 각자의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다. 변화하는 세상의 환경을 고려하며 적합하고 창의적인 선교전략 개발을 위해 선교대는 전문영역트랙 중심적으로 변화를 가져다. 급변하는 상황의 변화, 지역교회로의 장소 변경은 더욱 전략적인 생각을 하도록 이끌었다. 지역별, 권역별, 종교별 모임의 한계를 뛰어 넘어 더욱 전략적인 선교방안을 마련하고자 영역별트랙을 통하여 네트워킹을 도모하고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선교대회 결과의 지속성을 바라보며 전문 네트워킹의 확장을 바라며 선교대회를 마쳤다. 위로와 격려를 받은 선교사들은 감동과 감격으로 가득한 기억을 가지고 선교지로 돌아가고, 교회와 성도들은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였다. 이제 이런 바람들이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가도록 모두가 노력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다.

dr.yongcho@gmail.com

전도자 C. S. 루이스(2)



강태광 목사
(월드쉐어USA대표)

전도자 C.S. 루이스의 대중 전도

C.S. 루이스는 “불신자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했지만, 그는 전도에 서툴렀다. C.S. 루이스는 공격적인 개인 전도자는 아니었다. 루이스가 생활 현장에서 전도 활동을 열심히 했다는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C.S. 루이스가 개인 전도를 하지 않았다는 여러 증언이 남아 있다.

루이스의 운전기사로서 오래 일했던 클리프드 모리스(Clifford Morris)는 루이스가 강력하게 전도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다수의 루이스 제자들은 루이스가 전도 활동을 보지 못했다고 한다. 교회사학자인 디킨스(A.G. Dickens)는 C.S. 루이스의 개인 지도를 받았는데 루이스가 기독교 변증가처럼 활동하지 않았다고 말했고, 루

이스의 제자로 C.S. 루이스 전 기작가가 된 조지 세이어(George Sayer)는 2년 동안 루이스가 기독교 신자인 줄도 몰랐다고 했고, 루이스의 제자인 해리 블라마이어스(Harry Blamires)는 10년 동안 루이스와 종교적인 문제를 토의한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런데도 많은 학자와 루이스 전 기작가는 C.S. 루이스를 전도자라고 부른다.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다. 우선 루이스가 남긴 서적들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변화된 사람들이 드러났다. 사실 루이스의 책은 지금도 전도를 계속하고 있다. 둘째는 공개적으로 기독교 진리를 전할 수 있었던(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에 적극적으로 참석하며 대학교 지성인들에게 기독교 진리를

전했다. 셋째로 루이스는 중요한 기회에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대중 전도 활동을 했다. 그의 대중 전도 활동은 루이스의 전도자 임지를 공고하게 했다.

루이스의 대중 전도(강연) 활동은 그의 전도자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루이스는 세 번에 걸쳐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루이스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가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것이 계기가 되어 영국 공군 군중감이 공군부대에서 기독교를 소개하는 강연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루이스는 이것이 전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라고 생각하고 공군부대 순회강연을 수락했다.

1941년 5월 루이스는 공군부대 강연을 마친 후 친구인 성공회 수녀 페넬로페에게 “공군부대에서 강연했는데, 완전히 실패한 것 같습니다”라고 편지했다. 반면 당시 공군부대 감독(Bishop A. W. Godwin-Hudson)은 “대성공이었다”라고 아내에게 소식을 전했다. 이런 평가 때문에 루이스는 전쟁 기간 내내 공군부대를 순회하는 선교 여행을 했다.

영국 공군부대 순회 강연을 시작하기 전인 1941년 2월 루이스는 BBC 방송국 종교방송

국 국장 J.W. 웰치 목사의 편지를 받았다. 웰치 목사는 당시 루이스가 내놓은 <고통의 문제>라는 책의 출판에 대한 축하를 전하면서 BBC 종교 방송을 진행을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던 것이었다. BBC 방송국은 다양한 견지에서 건강한 기독교 방송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2차 대전의 전쟁 상황은 점점 심해지고 있었고, 당시 영국 국민은 불안에 떨었다. 백성들에게 신앙적 확신과 위로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아울러 당시 영국군 신병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부활절의 의미를 아는 신병은 23퍼센트에 불과했다. 전시에 장병 신앙은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 장병 선교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런 상황에 BBC가 기독교를 소개하는 방송 강연을 기획했다.

1941년 8월 6일 수요일 저녁 7시 45분부터 15분간 첫 강연을 했다. 기독교 방송국 국장 웰치 목사와 부국장 에릭 펜 목사와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진행했던 이 방송 강연은 그야말로 대박이 났다. 루이스는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았고, 방송 직후 강의 원고를 세 권으로 받았는데 날개 돌린 듯이 팔렸고, 합본으로 발행한 <순전한 기독교>가

독자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루이스가 대중 강연을 했던 또 하나의 경우는 옥스퍼드 대학교 기독교학생회(OICCU) 책임자였던 엘리자베스 캐터우더(Elizabeth Catherwood/마틴 로이드 존스목사의 딸)의 초청으로 옥스퍼드 기독교 학생회(OICCU)에서 “기독교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는데, 대학생들에게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명강의였고 많은 결신자를 낳았다는 보고가 있다. 비록 기독교학생회라는 모임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있었던 모임이었다.

넷째로 C.S. 루이스는 옥스퍼드 소크라테스 클럽(The Socratic club)에서 매주 불신자들을 만났다. 소크라테스 클럽의 회장으로 지도교수 역할을 했던 루이스는 소크라테스 클럽의 주례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그가 소크라테스 클럽 회장을 맡은 1942년 1월부터 1954년 6월 케임브리지대학교 중세와 르네상스 영문학과 학과장으로 옮겨 갈 때까지 성실하게 회장을 수행했다.

루이스가 회장직을 맡았던 기간에 약 200여 회의 주례 모임에 주재자로, 강연자로 혹은 논찬자로 참여했다. 소크라테

스 클럽의 설립자요 의장이었던 옥스퍼드 대학교 교목이었던 스텔라 올드윙클(Stella Aldwinckle)이 루이스에게 소크라테스 클럽의 회장직을 맡아 달라는 요청했을 때 루이스는 큰 고민없이 수락했다. 이 일을 자신의 사명으로 알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C.S. 루이스를 연구했던 마이클 트래버스(Michael Travers) 박사는 루이스가 전도를 모든 크리스천 삶의 목표로 보았고, 루이스 자신의 문화와 집필의 핵심 목표가 전도라고 보았다고 했다. 루이스는 전도하기 위해 살았고, 전도하기 위해 글을 썼다. 루이스는 전도하는 일(기독교 복음을 변증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C.S. 루이스는 전도를 실천하기 위해 주어진 기회를 활용했다. 이 기회들을 활용하면서 루이스는 대중 전도 활동을 하였고, 큰 결실을 보았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루이스는 이런 자신의 전도 활동을 전도 활동으로 보지 않고 “예비 전도(Pre-evangelism/ Praeparatio Evangelica)”라고 보았다는 것이다.

다음 호에 예비 전도를 살펴 보려 한다.

Kangtg1207@gmail.com

매일가정예배

김상덕 목사 (복음장로교회 원로)
sangdkim@yahoo.com

월 하나님이 보내신 세례 요한의 사명(막 1:1-4) 찬 67장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세례 요한을 예수님보다 먼저 이 땅에 보내신다. 영원히 불행한 죄인을 구원하시기 오시는 복음이신 예수님을 전하는 나팔수보 보내신 것이다. 오늘날 구원을 받은 사람은 주님이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 사명을 가지고 사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다. 죄인으로 가득한 이 땅의 사람에게 복음이 되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다. 나를 통하여 주님의 행상이 나타나는 삶으로 증인이 되고 복음의 내용을 말로 전하여 듣도록 하여야 한다. 반대로 복음을 가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 (요 17:18. 딤편1:6).

화 죄를 가까이하지 말고 주님을 가까이하라(막 1:4,5) 찬 532장

이 세상에서 나그네 삶을 마치면 죄인의 신분으로 떠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떠나는 자가 있다. 당신은 어떠한 신분으로 세상을 떠날 것인가? 어떠한 자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는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은 이미 받은 자는 이 땅에서 항상 죄를 조심하여야 한다. 죄에서 나타나는 사망의 생각을 마음에 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품으면 죄가 나타나는 사람이 된다. 대신에 하나님

의 아들이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마음에 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리고 죄를 마음 안에 숨기지 말라 죄는 변명으로 내 안에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 그 죄의 생각을 당신은 미워하고 원수시하고 마음에 품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항상 대적하여야 한다. 내 마음은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거룩한 장소임을 알고 거룩하게 하여야 한다(고전3:16,17).

수 주님의 영광 연합이 된 영적 실상을 알고 누리라(막 1:7,8) 찬 539장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다. 그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신 말씀을 들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가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고 음성을 귀로 들을 수 없다. 세례 요한을 통하여 볼 수 있게 하시고 들을 수 있게 하신 것이다. 이와 같이 나 자신이 예수님을 믿어 영접한 사람이 분명

하다면 성령께서 친히 나에게도 임하여 현재도 계실의 실상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 즉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영원한 음성을 믿음으로 들어야 한다. 영원하신 음성이요 영원한 임재 즉 주님의 영광 연합의 실상을 보고 누리려 한다(요14:11,20).

목 손을 씻는 것도 필요하지만 마음의 부정된 생각을 씻어야 한다(막 7:2-6) 찬 259장

성도여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것은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마음이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마음에 악한 생각들이 살아 있는 상태다. 죄에서 나타나는 생각들이 마음에 살아 있으면 마음은 더럽고 부정하고 악함이 나타나고 그 부정된 생각들이 이웃에게 나의 말을 통하여 전염이 되고 그 사람도 더러워지게 한다. 항상 나의 마음이 죄로 나타나는

부정된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마음을 지켜야 한다. 마음이 더러워지면 마음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감동이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죄의 감동이 일어난다. 오늘날 사람의 마음에 악한 생각이 가득하고 그 가득함이 말을 통하여 세상에 가득하게 채우고 있는 세상이다. 마음을 굳게 지키라(잠4:23, 신4:9).

금 교훈을 지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막 7:6-9) 찬 323장

성경 말씀을 하나님을 보여 주는 거울이다. 거울을 통하여 자신을 보는 것과 같이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성경말씀은 하나님을 보여 주시는 거룩한 거울이다. 예수님 시대에 성경학자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한 영적 맹인이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앞잡이 노릇한 죄의 종이였다. 죄의 종이 성경 박사가 될 수 있고 바

리새인과 같이 거룩한 행세를 할 수 있다. 당신은 성경 말씀을 믿는가? 예수님을 믿는가? 예수님이 영으로 당신에게 임하신 사실을 믿는가? 항상 깨어 있는가? 주님의 자리인 마음을 더럽히지 않고 잘 모시려고 항상 노력하는가? 실제적으로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은 그 삶에서 증거로 나타나는 법이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는 법이다.

토 자신의 마음을 더럽히는 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자여 (막 7:20-23) 찬 280장

우리 몸의 건강을 해치게 하는 것은 멀리하며 경계한다. 그와 같이 나의 마음을 더럽히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은 더욱 경계하고 멀리하여야 함이 마땅하다. 어린 아이는 병들게 하는 음식을 분별하지 못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입에 넣는다. 유아기 상태의 특징이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더럽히고 병들게 하는 생각들을 분별하지 못하고 무조건 나타나는 생각들이 마음에 담아 생각

한다. 영적 어린아이이기 때문이다. 물론 교회에서 직분을 받은 자일지라도 이러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영적 유아이다. 내 마음에 살아 움직이는 죄의 생각을 바라보지 말고 거룩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타나시는 거룩한 말씀을 생각하라. 그렇게 빛을 가까이 하면 어둠이 물러가듯이 더러운 악한 생각들이 힘을 잃고 물러간다. 이것이 마음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다.

기독교교육 (54)



김종환 목사
(달라스침례대학교 교수)

안식일과 주일(3)

안식일의 정신 둘째는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은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다"고 하지만, 구약시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다. 주인과 종의 위계질서가 분명했습니다. 종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종은 주인의 소유물이었습니다.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었습니다. 그저 말하는 농기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든 사람들이 평등했습니다. 그날은 주인도 쉬고 종도 쉬는 날이었습니다. 안식일에는 사람과 일이 분리되었습니다. 사람들을 일과 분리해 놓으면, 모두가 그냥 사람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이 사람 되는 날이었던 것입니다.

일에 몰두하다 보면 사람을 못 보게 됩니다. 일을 중하게 여기다 보면 사람들을 능력에 따라 평가하게 됩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은 유능한 사람, 일을 못하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 큰 일을 하는 사람은 중요한 사람, 허드렛일을 하는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그러나 안식일에는 모두가 쉬기 때문에 유능한 사람, 무능한 사람이 없어집니다.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없어집니다. 모두가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는 모든 구분이 사라지고 남자와 여자만 남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에 안식일의 정신을 살려서 사람이 사람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교회는 위화감(DISHARMONY)을 불러일으키는 말이나 행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또한 함부로 명함을 돌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부를 때, 직함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람을 계급으로 보지 않고 사람으로 보도록 해야 합니다. 주일은 사람이 사람 되는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안식일의 정신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일에 눈이 멀면 하나님조차 못 알아봅니다. 본문 1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셨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늘과 땅과 바다에서 일하면서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의 형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그래서 제 1계명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라고 했고, 제 2계명은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또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사를 거두는 일을 하면서 만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몰랐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루 치만 거두지 않고 이틀치를 거두었다가 벌레가 나고 썩게 했습니다. 애굽 종살이에서 구원하시

고 가나안을 정복하게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식일을 맞으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안식일날 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한 것입니다.

오늘날 크리스천들도 재물, 명예, 권력 같은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 물질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살다보니 일이 하나님이 됩니다. 의, 식, 주, 의료보험, 생명보험이 모두 일에서 나오다보니, 일이 하나님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호환마마(호랑이에게 화를 당하는 것과 천연두를 제일 무서워했다지만 요즘은 "퇴직"을 가장 무서워합니다. 평소에는 일하러 가기를 그렇게 싫어해도 "이제 일 그만 하시오." 하면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교회를 그만 둘래, 아니면 회사를 그만 둘래"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포기하고 회사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버려도 일은 못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일이 하나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일날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생각해보고,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영광과 존귀를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들어 모시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안식일의 정신을 연습하고 실천하는 날입니다.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많은 예를 쓰지만 그들의 노력과 수고는 형식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치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라고 했습니다(막 2:27-28). 안식일은 사람들을 위한 수단이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은 사람들이 영원한 안식을 사모하게 하는 수단이고,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수단이었으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안식일의 정신을 방안에 앉아 컴퓨터를 들여다보며 실천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구약은 안식일에 육신의 일을 쉬는 것만 강조했지만, 신약 마태복음 12:12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선한 일을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막 3:4; 눅 6:9). 그러므로 크리스천들은 주일에 육신의 일을 멈추고, 선한 일에 힘써야 합니다. 주일에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주일에 서로 섬겨야 합니다.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교회가 안식일의 정신이 깃든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이 안식일의 정신을 실천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JONK@DBU.EDU

2024년 9월 16일(월)

추석 성묘행사

우리의 명절 한가위를 맞아 하늘가족이 연례 성묘행사를 개최합니다.

- 접 수 : 중앙장의사 (718)353-2424
우리 어덜트데이케어 (718)709-4747
- 출발장소 : 중앙장의사 9:30AM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11358
- 방문요지 : 무궁화동산, 파인론, 성 찰스묘지
- 접수마감 : 2024년 9월 10일(화) 오후 5시까지
- 기 타 : 성묘객을 위한 송편, 음료, 성묘꽃을 제공합니다.
- 주 최 : 하늘가족재단
- 주 관 : 중앙장의사
- 후 원 : 산수갑산2, 우리어덜트케어, 후러싱 회원, 해피꽃집



뉴욕·뉴저지 대표번호
Tel: 888-353-2424



당신의 빈자리...

태어나던 날 만큼이나 마음을 다하여 모셔드립니다



누구나 그 자리를 비워야만 하는 날이 오지만, 보내는 가족은 늘 아픔과 안타까움으로 남습니다.

열심히 한 생애를 살아온 당신을 위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억되도록 머리카락 한올까지 흐트러짐 없는 최고의 예를 다하겠습니다.

마지막 정성을...
하늘가족, 중앙 장의사

NY: (718)353-2424
NJ: (201)945-2009

70대 이상 파킹 가능한 대형 피킹장 완비

NY(뉴욕) 162-14 Sanford Ave., Flushing, NY NJ(뉴저지) 809 Broad Ave. Ridgefield, NJ

장례사전계획 / 장례식 코디네이터 / 성직자 초빙 / 묘지구입 상담 / 운구 한국소환 / 이장 / 기타 장례의 모든 것



선교편지

필리핀

1. 공선교사 재할

올해는 유난히도 더 덥게 느껴지고 있으며 세계 곳곳에 이상 기온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더위로 사망한 한해입니다. 한국에 2월 16일에 도착하였을 때는 눈이 많이 내렸고 지금은 필리핀과 같은 여름 더위를 보내고 있고 선선한 가을이 오면 선교지로 돌아갈 것입니다. 돌아오는 추석에는 가족과 함께 한국에 있게 되는데 한국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은 22년만입니다. 매년 4년마다 1달 보름을 한국에 안식년으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공선교사의 양쪽 무릎 인공관절 수술과 대장의 큰 용종 수술로 인하여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재할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지팡이 없이 편하게 걸을 수 있게 되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의 의료 대란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에 수술을 잘 마칠 수 있게 되어 다행입니다. 인공관절 수술을 하기 위해 공선교사는 지난 10여 년을 기다려 왔었고 많은 분들의 기도로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선교지 다녀옴

저는 지난 6월 5일부터 20일까지 잠보양가 선교지에 다녀왔습니다. 4개월 만에 선교지에 돌아다니 해야 할 일이 많이 밀려 있어 잠깐 방문한 시간이 부족하였습니다. 2월 16일에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집 주인에게 4개월 치 집세와 전기세, 수도세를 주고 떠났고, 새희망 학교에도 4개월 치 월급을 놔두고 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정전이 되어 있었고 알고 보니 저희 집 전기가 끊어진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집 주인이 변호사인 데 바빠서 전기세를 내지 않았습니다. 올해처럼 무더운 여름 날씨에 잠보양가는 정전이 매일 몇 시간씩 되는데 무려 두달 동안 전기가 끊어져서 작은 냉장고 2개 안에 있는 고추장, 된장, 멸치, 김치, 화장품, 냉장 식품 재료가 모두 썩어 냉장고를 청소하느라 여러 날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대부분 선교지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고 한국 식품 가게도 많아 필요한 것을 쉽게 사먹을 수 있지만 저희 잠보양가 지역은 한국인 여행 금지

구역이고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전혀 없고, 한국에 가끔 나올 때마다 조금씩 가져가서 냉장고에 넣어 두고 아껴서 먹었는데 전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다 버릴 수밖에 없어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한국처럼 큰 양쪽 문 냉장고가 아니고 작은 냉장고라 물건을 많이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지의 저희 집은 50년이 지난 나무 집이라 하얀 벌레들이 화장실 벽과 복도 벽을 갉아 먹어 나무 벽을 때어 내느라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마당에서는 전갈이 시도 때도 없이 기어 나와 전갈을 잡느라 땀을 흘리기도 하였습니다. 선교지로 돌아오기 전에는 다시 집 주인에게 4개월 치 전기세, 수도세를 맡기며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이번에는 집을 잘 살펴 봐달라고. 그리고 새희망 학교에도 4개월 치 월급과 여름 성경학교 비용을 맡기고 돌아왔습니다.

2024년 올하는 선교지에 있는 시간보다 한국에 머무는 시간이 더 길어지는데 두고 온 사역지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사가 쉽게 가기 힘든 지역에 들어가 사역해 오는데 그동안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고, 납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저 대신 현지인이 잡혀간 일도 있었고, 죽을 뻔한 몇 명의 아이들이 저희 부부를 만나 살아난 일도 있었고, 폭탄이 터져 위험한 일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지켜 주셔서 사역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에 감사할 뿐입니다. 한국도, 선교지도 시간이 갈수록 많이 변해가지만 늘 처음 선교지에 도착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해나가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30번째 사역이 진행되어 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과 동역자들의 끊임없는 기도를 간구합니다.

3. 새희망 학교 졸업식

6월 13일에는 학교에서 유치원 졸업식과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졸업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 유치원은 26명이 졸업을 하였습니다. 필리핀은 졸업식이 한국의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졸업식을 마쳐야 다음 학년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필리핀은 졸업식 때 학년별로 상을 주는데 한국처럼 반에서 1,2,3등만 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반나절 동안 상을 주는데 대부분의 학생들의 가슴엔 과목별로 리본이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상을 많이 주어야 다음 학



년에도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합니다. 한국처럼 자동적으로 학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학생들처럼 매년 등록을 하여 공부를 합니다.

6월 14일에는 새희망 학교에서 졸업식을 할 때 바랑가이(주민센터의 농구장)를 빌려 사용하였습니다. 올해는 11회 졸업식이며, 6학년 학생 16명이 졸업을 하였는데 이번에는 모두 주변의 중학교로 진학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새희망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가는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로 진학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졸업식과 졸업식을 일주일 동안 준비하는데 프로그램이 많아서 그렇고 한국과는 많이 다릅니다. 지난 7년 동안 새희망 학교에서 공부를 하였고, 주변의 중학교로 진학하는 졸업생은 졸업식 이후에도 학교 예배에 참석하기에 계속해서 일 굴을 볼 수 있어 좋습니다. 2024년 새학기는 8월 12일부터 시작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여 공부하며 기독교 교육과 신앙을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올해 저희 부부가 한국에 와 있는 사이에 학교 안에는 교장 부부와 청년 한 명이 학교 기숙사에 거주하며 학교를 관리하여 있어 마음이 편합니다.

4. 여름 성경 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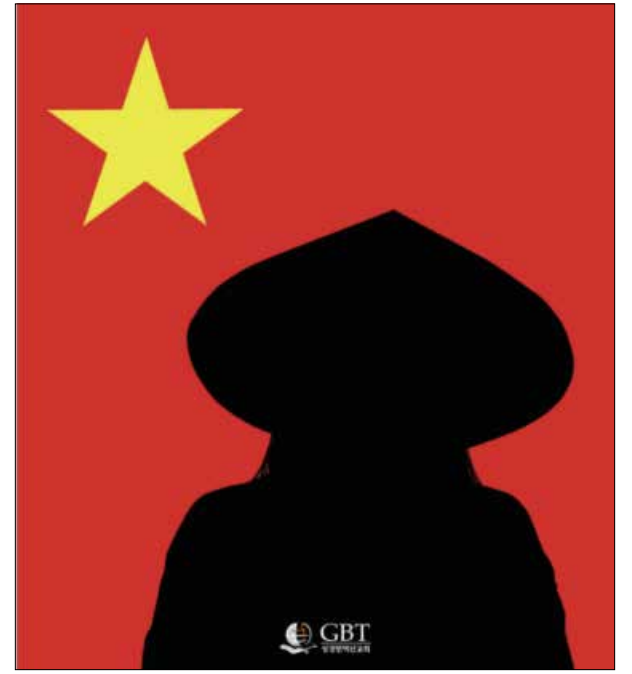
6월 25일부터 29일까지 새희망 학교에서 여름성경학교(VBS)를 하였습니다. 올해는 저희 부부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자체적으로 여름성경학교를 준비하였습니다. 미국에 계신 동역자가 여름성경학교 교재를 보

내주어 이번에는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매년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성경학교 교재 구하는 일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좋은 교재를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선교지에 있을 때는 보통 120~150명 정도 학생들이 참여하였고 그때는 차량을 운영하여 더 먼 거리의 무슬림 학생들이 많이 참여하였습니다. 이번에는 80여 명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성경공부와 새로운 찬양, 게임, 간식 등 좋은 시간을 가졌고, 여름성경학교를 통하여 더 많은 학생들이 예배에 연결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성경학교 때마다 경복 왜관의 유 집사님이 재정을 신실하게 보내주는데 지난 7월에 구미에 선교보고 갔다가 유 집사님을 다시 만났는데 22년 만에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저희 선교지가 외진 지역이고 외부에서 좀처럼 손님들이 오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손길을 통하여 사역을 이루어 나가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기도 제목

1. 공선교사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잘 되었는데 재할을 잘 할 수 있도록
2. 새희망 학교에서 예배를 통해 학생들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3. 저희 부부가 한국에 있는 동안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이 사역이 진행되도록
4. 8월 12일부터 2024년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 많은 학생들이 등록을 하여 공부할 수 있도록, 오정윤 선교사

세계 곳곳에 있는 소수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 국가명 베트남

▲ 종족명 쑤-라오 종족

▲ 인구 약 10,000명

▲ 종교 민속 종교 60%, 불교 39%, 복음화율 1%

▲ 복음매체 성경 번역 필요, 기타 매체 없음

▲ 종족 프로필 수 세기 전 중국에 살았으나, 쫓겨나 베트남 북부, 라오스 등으로 이주했다. 1950년대에 공산주의에 반대하던 사람들이 대량 학살을 당했다. 정령 숭배와 불교가 결합된 민속 종교나 소승불교를 믿는다. 1996년 8월에 있었던 홍수와 산사태 같은 큰 자연재해가 해마다 발생한다.

▲ 기도제목

1. 성경 번역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과 온전한 복음이 이들에게 전해지도록
2. 복음으로 탄압과 압제로 인한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도록
3. 계속되는 자연재해의 고통 가운데 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GBT 성경번역선교회)

www.chpress.net

보다 신속하고 빠른 그리스도의 메신저가 되겠습니다.

The Korean Christian Press 미주크리스천신문

여러분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빛이 되겠습니다

기분좋은 만남, 정성을 다하는 명준모 위장내과 최선을 다하여 최고의 진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무통 위 내시경
- 무통 대장 내시경
- 조기 위암, 대장암, 식도암 진단
- B형, C형 및 각종 간염 진단/치료, 알코올성 간염, 간 조직검사, 지방간
- 각종 소화기 질환
- 최신 특수컴퓨터 비디오 내시경 시술

메디케어 및 각종보험 취급

- 120대 주차장 완비
- Q28, Q13 버스정류장 앞

주소 154-08 Northern Blvd. Suite 2K(154가 노던 코너) Flushing, NY 11354 TEL: 718-445-0200 FAX: 718-445-0226

영화롭고 아름답게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바라보시는 주님

워라벨과 미라클모닝을 고민하는 도시 청년들과 나누는 대화는 언제나 즐겁다. 다이어트와 퍼스널컬러 찾기에 진심인 젊음의 에너지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겠다는 그들의 다부진 마음과 별개가 아니다. 집에서 이미 고인이 된 신학자의 글을 읽고 사랑에 빠졌다가 어느 날은 실망하고 헤어짐을 고하고 또 다시 만나 사랑하는, 나름 다이내믹한 나의 루틴과는 전혀 다른 신학적 현상일까. 사랑과 가치와 의미를 찾아 노력하고 고민하는 그들의 모든 날갯짓이 역동적이고 아름답다고 느껴진다.

안과 밖이 모두 아름다운 삶을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고(故) 장영희 박사의 칼럼집에서 깊이 공감하는 에피소드가 있다. 어릴 적부터 소아마비를 앓았던 그녀가 서강대 영문학 교수로 재직 중의 일이다. 동생이 쇼팽하러 가자고 졸라서 따라 나선 명동의 한 옷가게 문턱이 너무 높았고, 혼자 매장 밖에서 피팅룸에 들어간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한다. 별안간 옷가게 사장이 나와 '지금 돈이 없으니 나중에 오라'며 반복해서 소리를 질렀고, 무슨 뜻인줄 몰라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동생이 나와 상황을 해결했다는 짧은 이야기다. 장영희 박사는 화장기 없는 중년의 나이에 허름한 옷을 입고 목발을 짚고 있으니 거지로 오해 받을 만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날 이후 옷도 사고 간단한 화장을 시작했다고 한다. 그녀의 단정하고 반듯한 아름다운 내면의 빛깔을 밖으로 조금이나마 드러내기 위해서였다. 나는 이 일

화를 통해 남편에게 자주 한탄하던 습관 하나를 고쳤는데, '화장이 너무 하기 싫은데 결국 강의 전에 화장을 하고 있는 내 모습이 한심하다'는 반복적인 탄식이었다.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생각과 행동은 반드시 겉으로 드러난다. 그리고 나는 모든 사람과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든 반응과 믿음도 또한 언어와 모습과 행실을 통해 드러난다. 반대로 절망과 슬픔과 무기력 같은 부정적 상태도 그렇다. 그에 대한 생각과 사상이 영혼에만 머무르지 않는다. 만약 그렇다면 환상이나 망상이 될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거짓이나 위선이 될 뿐이다.

지난 프랑스 올림픽 개막식에 보인 예술 행위는 프랑스가 지닌 미의 기준과 실체를 일컫는 데 나름 성공했다. 인간의 자유를 묵숨보다 더 귀한 것으로 여겨온 전통 아래 인간을 자유롭게 할 '정치적 자유'와 '성적 자유'를 동일하게 여기는 사상을 표현했는데, 결국 '술의 신 디오니소스'만이 인간의 자유를 가능케 한다는 믿음을 화려하게도 드러냈다. 그들이 전 세계에 동시에 방영하며 얻은 파장과 효과는 슬프게도 놀랄 만한 수준이었다. '예수님의 자리에 동성애자를 앉힌 최후의 만찬 그림 패러디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신성모독'이라는 무수한 비판밖에는 할 말이 별로 없는 기독교 지성에 또 한 번 반성하며 인간의 자유와 행복과 아름다움에 대해 뜨겁게 고민한 여류이었다. 이 시점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떤 종류의 아름다움을 품고 드러낼지, 고

민이 필요하다. 매력 넘치는 인간이 되기 위해서는 거부할 수 없는 좋고 선한 가치들이 많이 있다. 대중의 여가 시간을 책임지고 있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들여다보면 '외모'가 독보적인 아름다움의 기준이며, 정치에서는 '통제권'이, 예술계에서

Catechism, 1926)이 있었다. 지능으로 인간의 등급을 정한 끔찍한 역사의 중심에 교회가 있었고, 여전히 다른 여러 모양으로 오늘의 교회 또한 다양한 기준으로 수용한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또는 '문화 위에 계신 그리스도'



는 '몰입감'이, 경제를 움직이는 돈의 세계에서는 '력서리함' 모든 것들이 아름다운 삶에 있어 높은 점수를 받는 듯하다. 또한 AI에 모든 열정을 쏟고 있는 이 사회는 인간의 높은 '지능'에 좋은 미학 점수를 주는 것 같다. 기독교의 흑역사 중 한때 유럽과 미국을 휩쓸었던 '우생학'에는 미국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더불어 출간한 우생학 교리문답집(A Eugenics

를 자랑하기 위해, 많은 이유로 문화 가운데 최고의 미적 가치들을 선택하기에 바쁜 것 같다.

챗GPT가 이슈가 될 무렵 한 독서모임에서 각자 다른 영역의 학자들과 AI와 기독교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 그리스도인 박사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써 뛰어난 지능으로 인공 지능을 다스려야 한다는 합리적 이야기가 오갔다. 그러던 중 한 과학교육학 박사 '인간'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 질문을 던졌는데, 그의 두 살배기 아기가 생후 3개월 때부터 뇌전증과 혈액병을 앓으며 아무런 말도 표정도 없이 그저 크기만 자라고 있는 상황이었다. 우리는 '성경적 인간론'의 주제로 돌아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가치와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다. 돌려받지 못할 사랑을 쏟을 수밖에 없는 장애인을 둔 부모와 보호자, 숨어서 방 밖에 나오지 않는 54만 청년들의 가족, 늙고 병들어 죽음을 기다리는 노인들의 가족. 그들에게 아름다운 인간에 대한 기준 설정은 잔혹하기 그지없다.

시골교회 목사의 딸로 자란 어린 시절 풍경을 떠올려보면, 아름다운 인간을 상상하고 추구하는 일은 사치에 불과했다.

집에 귀신이 있다며 때만 되면 한밤중에 사택 현관을 두드리고 가족이 자고 있는 안방으로 뛰쳐 들어오던 여자, 교회에서 기도 많이 했으니 기도 값을 달라던 남자, 남편 사망보험금을 잔뜩 부어가며 금요일야예배 시간만 되면 만취한 상태로 교회에 들어와 남편이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던 여자, 집에 매일 찾아와 양자로 삼아 달라고 조르다가 교회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변태 짓을 하던 지적장애

컯병 언제나 반드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난다. 마치 종합병원의 풍경처럼, 가벼운 감기 환자부터 말기 중증 환자까지, 저마다 회복을 꿈꾸며 치유의 손길을 기다리며 예민해져 있다. 건강해 보이는 사람도 아직 병명이 진단되지 않았거나 별 증상 없이 잠복하고 있을 뿐, 교회 바깥사람들은 물론 이러한 영적 공동체는 병을 진단하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 외에는 소망이 없다. 교회는 아름다운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인간의 추함을 진단하고 드러내는 곳에 더 가깝다. 그래서인지 교회에서 자랐던 나에게 살면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는, 나 자신이 안 밖으로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아름답게 바라보는 일이다. 나를 포함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하나를 놓치거나 둘 다 실패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눈과 마음에 잊혔거나 분리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나이 마흔이 지나서야 바울이 유대인을 비판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끔찍이 사랑했는지 보이기 시작했고, 수년을 흠모하던 신학자의 미출간 원고까지 읽고서야 그도 나와 같이 흠 많은 사람임을 보았다. 사람에게 대해 해결될 수 없는 분노를 반복하여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깨닫지도 못하는 자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사랑이었는지, 흐릿하게나마 느껴본다. 가능할 수 없는 '우리의 죄의 크기'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는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되는 아름다움의 기준이다.

청년 등등. 주님의 교회 한가운데서 그저 "정상적 인간"으로 살 수 있기만을 소망했었다. 시간이 쌓이고 돌이켜보니 인간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것은 '정상'과 '비정상'이라는 기준도, '지성과 지혜'의 크기에 대한 기준도 아니었다. 자존감의 크기, 타인에 대한 이해 정도, 용기와 카리스마의 유무도 아니다. 아름다운 외모의 기준은 바뀌어 왔고, 올바른 인간관을 세우려는 노력은 심리/자기계발서를 포함해 방대한 이론과 양으로 우리를 옥죄어 자주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 뿐이다.

성경 속 아름다움에 대한 가르침은 '여호와를 경외함'이라는 마음의 방향과, 가장 아름다운 소식인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 특히 바울의 가르침은 아름답고 선한 행실을 구체적으로 연구하게 한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고 예배와 순종과 믿음의 행위를 아무리 많이 추구하고 집중해도 모자라지 않다. 그러나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자주 우리는 자신을 드러내 보이려고 하고, 곧이어 지나친 종교 행위로 그 진리의 길을 오히려 가로막게 되는 일이 많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 모이면 아름다운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아론과 제사장들이 입을 옷을 특별하고 아름답게 디자인하셨다. 이유는 그들을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였다(출애굽기 28:2).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영화롭게 바라보기로 하셨고, 오늘을 사는 우리 또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해 동일하게 아름답고 빛나는 옷을 입은 "왕 같은 제사장"(베드로전서 2:9)이 되었다. 왜 아름다운 인간이 되어야 하는지, 왜 영화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는 평생 매일을 질문해야 한다. 제사장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답지 못한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이다. 가난하고 포로된 사람, 눈멀고 놀려 있는 사람들(누가복음 4:18)에게 다가가는 자들이다. 영화로운 옷만큼이나 아름다운 내면의 말씀과 성령의 빛을 드러내며 걸어가기로 기도하며,

Soli Deo gloria!
by 서나영, TGC

제11차 다민족선교대회 2024
The 11th Multi-Nation Christian Missions Gathering

'세상의 변화에 대응하라!'
Be aware of the changes in the world!

Sunday, Sep. 15, 2024 at 5 pm.
퀸즈장로교회 (김성국 목사 사무)
The Korean American Presby. Church of Queens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주강사 Main Speaker
Rev. Steve Hwang
(The Crystal Evangelical Church of NY)

■ 연락처 Contacts: 회장 황규복 (917-204-9879), 공동준비위원장 이주수 (516-369-8602) / 송정훈 (917-921-3310)
■ Support(후원): 뉴욕지구한인교회협의회, 뉴욕한인목사회, 뉴욕정로성가단, 뉴욕실버미션, 뉴욕기독교방송(CBSN), 미주기독교방송(KCBN), 기독교뉴스, 북음뉴스, 아멘넷, 미주크리스천신문, 카이로스타일즈, 크리스천헤럴드, K-Good News, 단비TV, 뉴욕일보, 한국일보, 중앙일보, K-Radio(AM1660), KRB (FM 87.7 MHz)

대뉴욕지구 한인장로연합회
Host: Korean Christian Elders Association of Greater New York

송찬우 목사의 조각 글

가을 물감

시애틀 임마누엘장로교회 원로목사
chansong_hase@hotmail.com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랜 가을 끝에 비가 내리기에 '단비'라고 여겨져서 반가운 나머지 춤이라도 추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반가운 비가 내린 후에 제 눈을 사로잡은 것은 나뭇잎에 살짝 묻어있는 가을색이었습니다. 순간 가을 끝에 내린 비는 단비가 아니라 가을 물감으로 초목들을 물들여주고 내려진 '가을비'라는 것을 깨달았

니다. 순간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는 생각에 "천고마비"라고 하는 가을이 오고 있다는 생각에 기쁘기도 했지만 한편 "가을은 추수의 계절이기에 거둬들일 열매가 풍성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이 들며 마음에 부담스러움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중에 "봄, 여름을 지내놓고 나면 많은

적이나 거둬들일 열매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감사한 마음이 앞서기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제게 하나님은 이렇게 다가오셨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시 50:23)